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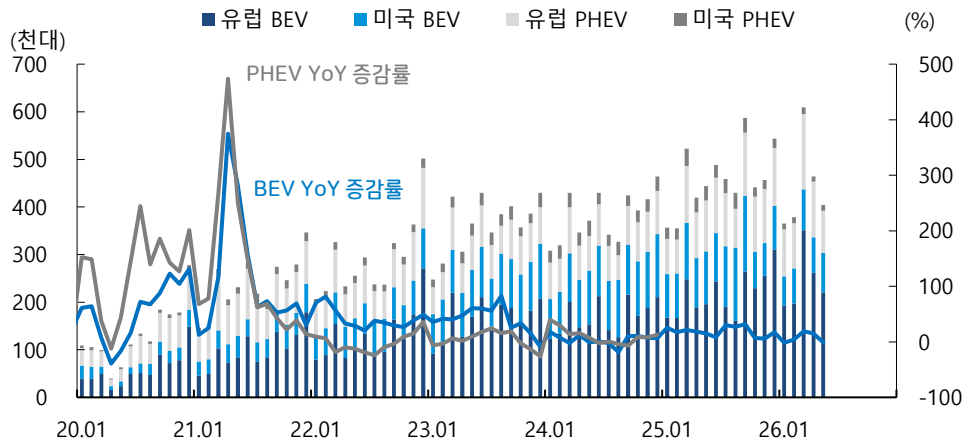
전기차: 미국은 부진하지만, 유럽 중심으로 회복세 관찰

- 5월 전기차 판매량** ▶ 유럽 자동차 CO<sub>2</sub> 배출 규제 강화 영향으로 뚜렷한 회복세. 독일 BEV 5.8만대(YoY: +35%), PHEV 2.8만대(YoY: +11%), 영국 BEV 4.6만대(YoY: +34%), PHEV 2.3만대(YoY: +26%), 프랑스 BEV 4.1만대(YoY: +91%), PHEV 0.8만대(YoY: -8%), 노르웨이 BEV 1.5만대(YoY: +14%), PHEV 0.1백대(YoY: -43%). ▶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조기 종료 이후 하락세. 5월 BEV 8.3만대(YoY: -25.3%, MoM: +10.3%), PHEV 1.2만대(YoY: -61%, MoM: +7%). ▶ 중국 5월 판매량 YoY 증감률 회복세. 다만 신모델 출시 감소와 제조 비용 및 차량 유지비 상승으로 성장세는 다소 둔화. 5월 전기차(BEV+PHEV) 판매량 138.2만대(YoY: +12.3%, MoM: +11.4%)
- News** ▶ 유럽 BEV 침투율 상승 지속. 2026년 1~5월 EU BEV 등록은 950,521대로 전년 대비 증가했고, BEV 점유율은 20.0%로 전년 15.3%에서 상승. 독일·프랑스·이탈리아 BEV 판매가 모두 큰 폭으로 늘었고, PHEV 점유율도 9.7%까지 상승(ACEA). ▶ CATL, 헝가리 Debrecen 공장의 셀 생산 지연과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의 어려움 언급. Mercedes가 당분간 중국산 셀/팩 조달을 이어가는 구조이며, CATL 회장은 전고체 배터리의 대량 양산이 2030년 이전에는 어렵다고 언급(Electrive). ▶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유럽 확장 지속. 5월 중국 승용차 수출이 전년 대비 73% 증가했고, NEV 수출은 43.5만 대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 BYD는 5월 해외 판매가 16만 대를 넘었고 2026년 해외 판매 목표를 150만 대로 제시(AP News). ▶ Ford-CATL, 미국 BlueOval에서 LFP 배터리를 2026년 출하 목표로 준비 중이며, 향후 저가형 전기 픽업 트럭 등 대중형 EV에 탑재할 계획. 미국 OEM도 고가 NCM 중심에서 LFP를 저가 EV·ESS 축으로 받아들이는 흐름(Electrive).

배터리: 미국 ESS 수주 호조세, 유럽 EV 수주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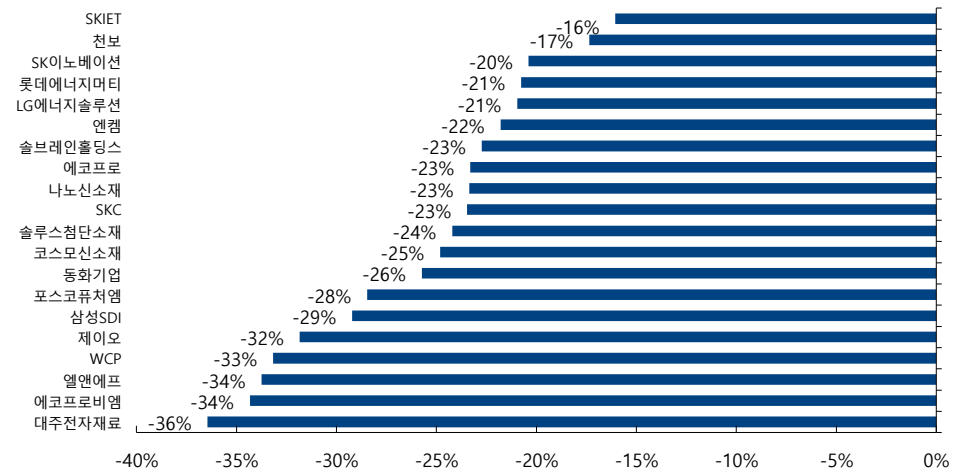
- 주요 Data point** ▶ 5월 한국 수출 YoY 리튬배터리(ESS 포함) ▲ +52.7%, 양극재 ▲ +5.9%(엘엔에프 ▲ +66.9%), 동박 ▼ -9.1%, 분리막 ▼ -14.3%(WCP ▼ -7.4%), 전해액 ▲ +3,736.3%, P전해질 ▼ -92.0%, 리튬(수입) ▲ +68.2%. ▶ 2026F Consensus MoM LG에너지솔루션 ▼ 적지, 삼성SDI ▼ -21.9%, 에코프로비엠 ▼ -4.0%, 포스코퓨처엠 ▲ +7.5%, 엘엔에프 ▼ 적지, SK아이이테크놀로지 ▼ 적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 적지, SKC ▼ 적지, 솔루스첨단소재 ▲ +87.8%, 나노신소재 ◎ 0.0%, 대주전자재료 ▼ -12.4%, 천보 ▼ 적지, WCP ▼ 적지 ▶ 6월 원자재 가격 MoM 리튬 ▼ -3.6%, 니켈 ▼ -5.7%, 코발트 ◎ +0.0%, 망간 ▼ -2.9%, 알루미늄 ▼ -5.3%, 구리 ▲ +0.6%. NCM 양극재(中 현물가) ▼ -6.1%, LiPF<sub>6</sub>(中 현물가) ▼ -12.5%
- News** ▶ GM, Peak Energy와 차세대 소듐이온 셀 기반 grid-scale ESS 개발에 협력한다고 발표. GM은 LGES의 Ultium Cells를 통해 LFP 배터리를 상업용 ESS에 공급하고, 중고 EV 배터리를 데이터센터·에너지 인프라에 활용하는 second-life 프로젝트도 추진 중(GM). ▶ Stellantis-Factorial, Honda-QuantumScape 등 전고체 배터리 개발 지속. Stellantis는 Factorial의 FEST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차량에 통합해 에너지밀도 375Wh/kg 달성. Honda도 QuantumScape와 전고체 배터리 공동 연구를 발표(Barron's). ▶ 엘엔에프플러스, 국민성장펀드로부터 2,200억원 지원 확정. 첨단전략산업기금 1,700억원이 포함된 총 2,200억원 규모의 자금이 12년 만기 장기·저리대출 방식으로 공급되며, 지원금은 국내 LFP 양극재 전용 공장의 구축에 전액 투입될 예정(조선비즈). ▶ SK온, 현대차 HMGMA에 NCM 배터리 단독 공급 중인 것으로 추정. SK온 배터리를 탑재한 HMGMA 생산 차량은 아이오닉5·9,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등으로 예상. 양극재는 Umicore, 전구체는 에코앤드림이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디일렉).

미국, 유럽 전기차(BEV+PHEV) 합산 판매량



자료: Marklines,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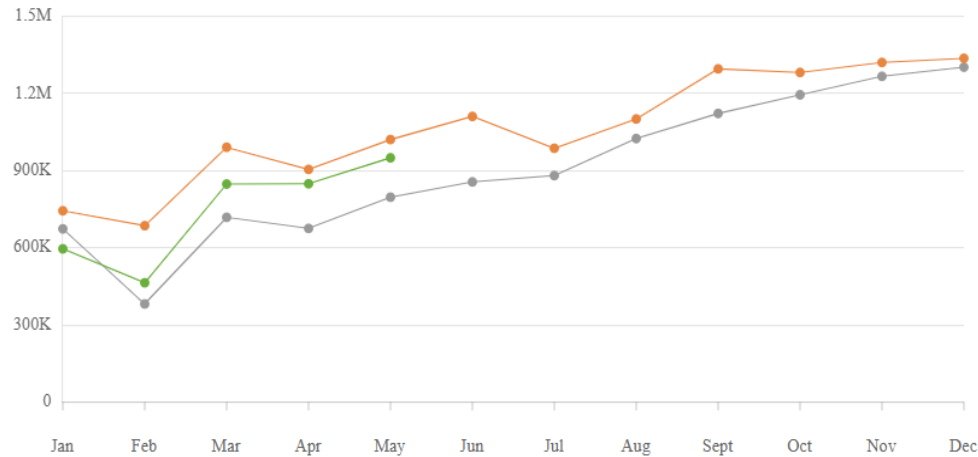
이차전지 업종 주가 MoM 상승률



자료: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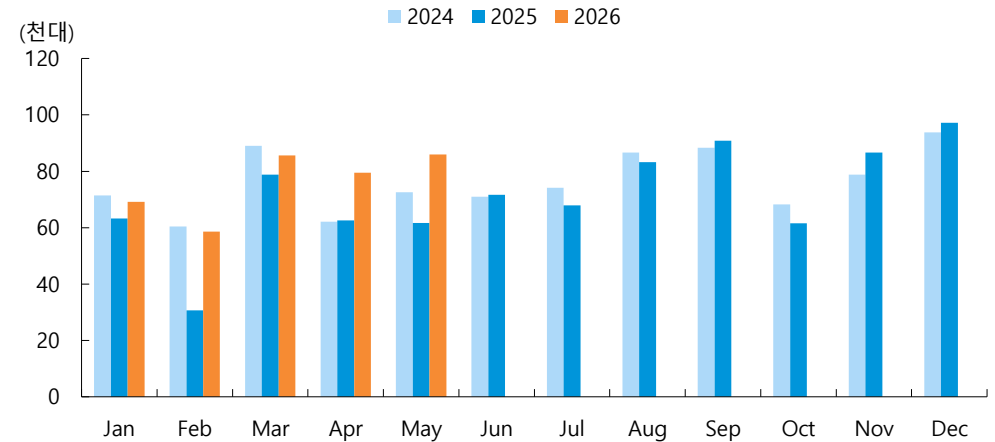
## - 2026년 5월 전기차 판매량: 유럽 전기차 회복세 지속, 미국 전기차 둔화세 장기화, 중국 전기차 전년 대비 일부 둔화

중국 친환경 승용차 5월 판매량: 95.0만대(YoY: -5%, MoM: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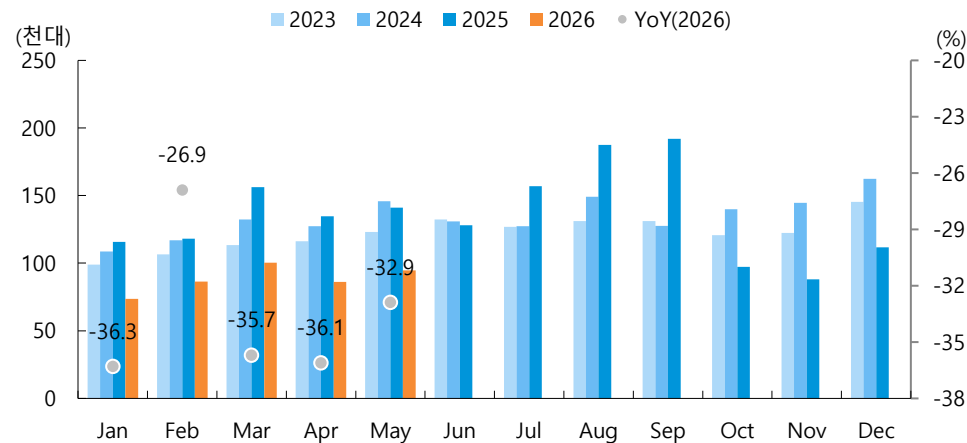
자료: CNEVPOST, iM증권

중국 생산 Model 3, Model Y 5월 출하량(내수 판매+수출): 8.6만대(YoY: +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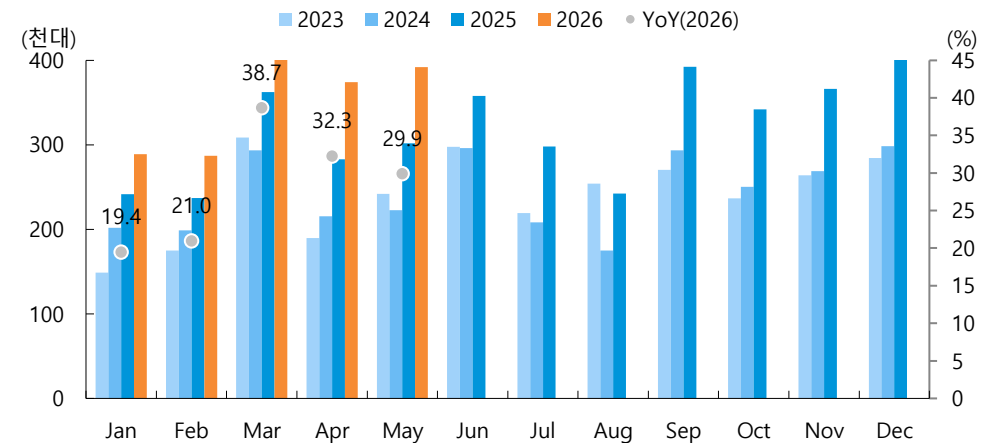
자료: CPCA, iM증권

미국 월별 전기차(BEV+PHEV) 합산 판매량: 5월 YoY 증감률 -32.9% 기록



자료: Marklines, iM증권

유럽 월별 전기차(BEV+PHEV) 합산 판매량: 5월 YoY 증감률 +29.9% 기록



자료: ACEA, iM증권

## AI 데이터센터향 ESS 수요, 2026년 기점으로 급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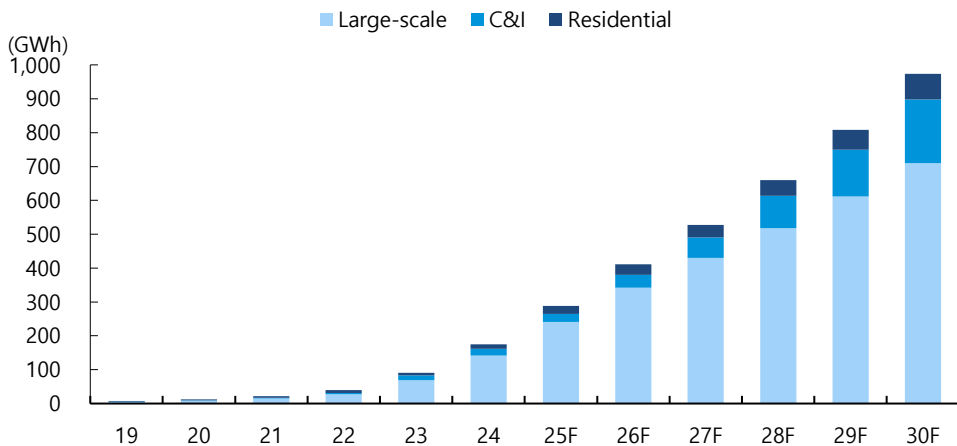
- 전세계 ESS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AI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증가를 배경으로 중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세 이어갈 전망. 시장조사기관인 BNEF에 따르면 전세계 ESS 신규 설치 규모가 2025년 약 241GWh에서 2030년 710GWh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일반적으로 ESS 공급망은 배터리 셀 제조사가 배터리 셀 혹은 ESS 완제품을 생산해 SI 업체에 공급하고, SI 업체가 ESS 운영체제를 구축해 최종 수요처인 전력 사업자나 하이퍼스케일 업체에 공급하는 구조. 이를 감안할 때 실제 ESS 혹은 배터리 수요는 신규 설치 규모보다 40~50% 가량 높을 것으로 추정

- 특히 ESS는 더 이상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보조 설비에 머물지 않고, AI 데이터센터 전력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 시장조사기관인 GGII에 따르면 전세계 AI 데이터센터향 ESS 배터리 출하량은 2025년 약 12GWh에서 2027년 약 61GWh로 증가하며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2030년에는 약 272GWh에 이르며 폭발적인 확장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 이는 5년간 20배 이상 증가하는 수치. 이에 따라 전세계 ESS 혹은 배터리 수요에서 AI 데이터센터향 비중은 2025년 약 4%에서 2030년 약 22%까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해당 비중은 전세계 ESS 수요를 'ESS 신규 설치량 x 1.4배'로 가정해 산출

- AI 학습과 추론은 일반적인 기업용 서버 워크로드보다 훨씬 높은 전력 밀도를 요구하며, 부하 변화 속도 또한 매우 빠름. 특히 대규모 GPU 클러스터는 동시 연산 개시, 모델 로딩, 학습 배치 전환, 냉각 시스템 연동 등으로 인해 순간적인 전력 수요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이에 따라 AI 데이터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 측면에서 ① 얼마나 많은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② 얼마나 안정적인 품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 ③ 급격한 부하 변동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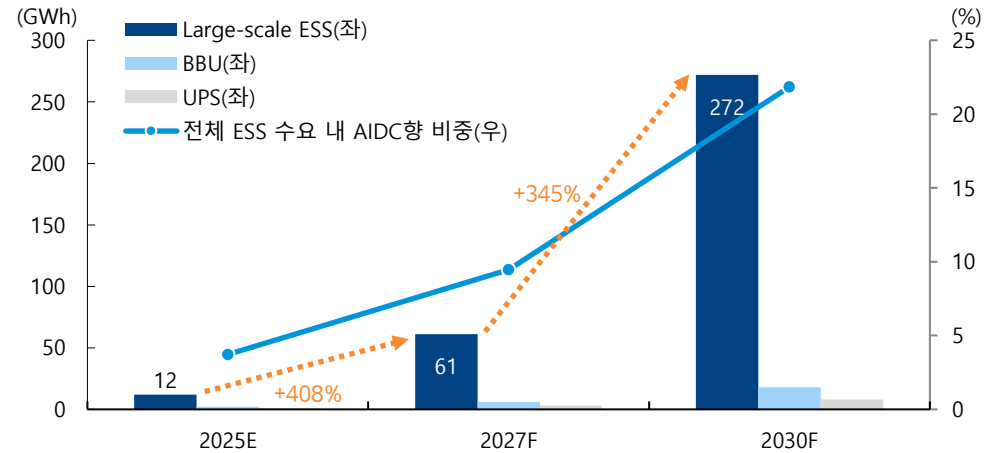
-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인프라는 크게 3계층 구조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 첫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발전원, 둘째, 급격한 전력 부하 변동성을 완화해 상위 전력 인프라를 보호하고 피크 전력에 대응하는 대용량 ESS, 셋째, AI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전력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정제하는 온라인 UPS가 핵심 구성 요소가 될 전망. 이 때 AI 데이터센터 환경에서 ESS는 사이트 레벨에서 외부 전원과 부하 사이의 완충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AI 연산 부하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전력 변동까지 흡수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

전세계 ESS 신규 설치 규모 → 실제 배터리 수요(출하)는 이를 크게 상회할 전망



자료: BNEF, iM증권리서치본부

전세계 AI 데이터센터향 ESS 배터리 출하량



자료: GGII, BNEF, iM증권리서치본부

## AI 데이터센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3계층 인프라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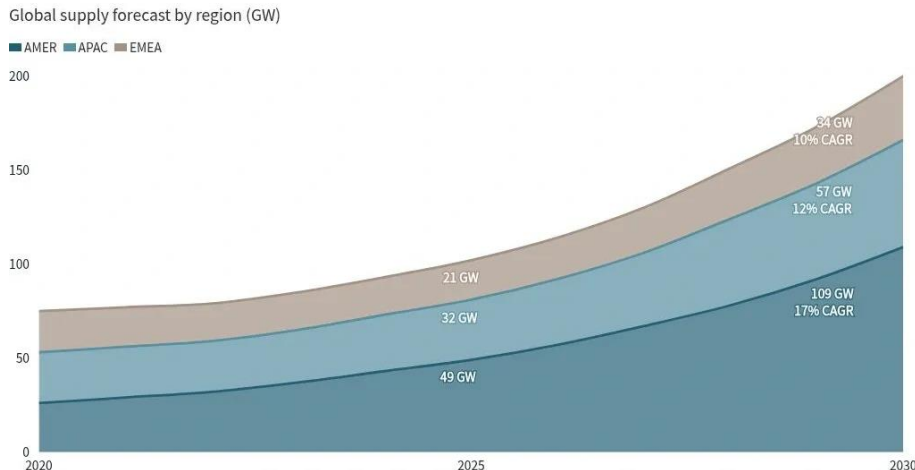
<그림> 향후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인프라는 크게 3계층 구조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



## 미국 AI 데이터센터향 ESS 수요가 전체 시장 견인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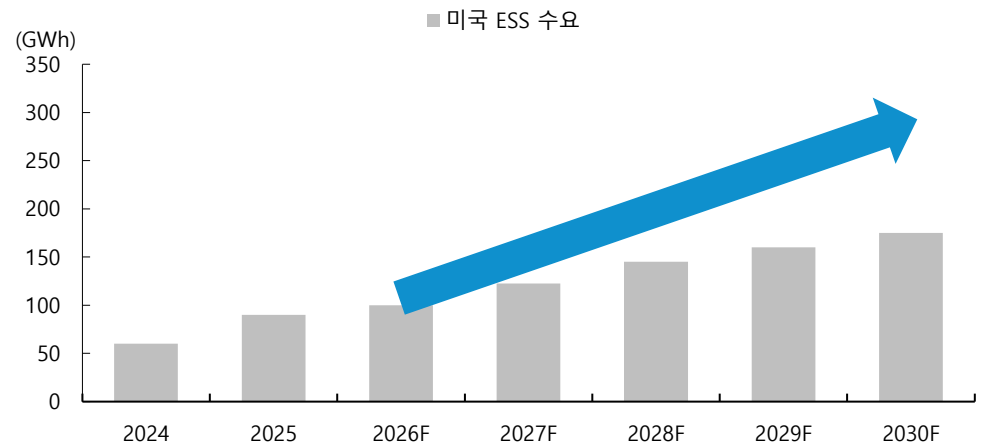
- 전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2025년 약 102GW에서 2030년 약 200GW까지 확대될 전망. 이 가운데 미국은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며 AI 데이터센터 증설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이러한 흐름을 AI 데이터센터향 ESS 수요 전망에 반영할 경우 2030년 미국 AI 데이터센터향 배터리 수요는 약 130~140GWh 규모에 이르는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세계 ESS 수요에서 AI 데이터센터향 비중은 2030년 약 22%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다만 미국의 경우 AI 데이터센터 증설 집중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ESS 시장 내 AI 데이터센터 비중은 글로벌 평균을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음. 이를 반영하여 2030년 미국 전체 ESS 수요에서 AI 데이터센터향 비중을 50%로 가정할 경우 미국 ESS 시장 규모는 약 270~280GWh, 40%로 가정할 경우 약 330~340GWh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 이는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전망하고 있는 175GWh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 따라서 AI 데이터센터는 미국 ESS 시장의 중장기 수요 전망을 상향시키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최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과 ESS 공급과 관련해 직접적인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수요 변화를 뒷받침. 특히 미국은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집중되는 동시에 중국산 ESS에 대한 관세 및 공급망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향후 미국 ESS 시장 확대 과정에서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수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과거 이차전지 업종의 주가 상승이 주로 EV 시장 성장 기대에 기반했다면, 향후 성장 동력은 ESS로 이동. ESS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구조적인 성장세 예상. 여기에 미국 내 관세, ITC 세액공제 요건, MACR 등 정책적 인센티브와 공급망 규제가 맞물리면서, 중국산 배터리 대비 국내 배터리 셀의 채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ESS 산업은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중장기 실적 성장 가시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 ESS는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EV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 ESS는 완제품 공급 비중이 높아 배터리 셀 중심으로 공급되는 EV 대비 판가가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 또한 EV 배터리는 완성차 업체와 차량 모델별로 요구되는 스펙이 다양해 제품 대응 부담이 크지만, ESS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소품종 대량생산이 가능. 이에 따라 높은 가동률을 확보하기 용이하며, 이는 생산 효율성 개선과 고정비 부담 완화로 이어져 셀 업체들의 수익성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전세계 AI 데이터센터 규모 전망 → 2030년 총 200GW 중 미국 50% 차지



자료: Avidsolution, iM증권 리서치본부

미국 ESS 수요 전망 → AIDC향 ESS 수요 급증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전망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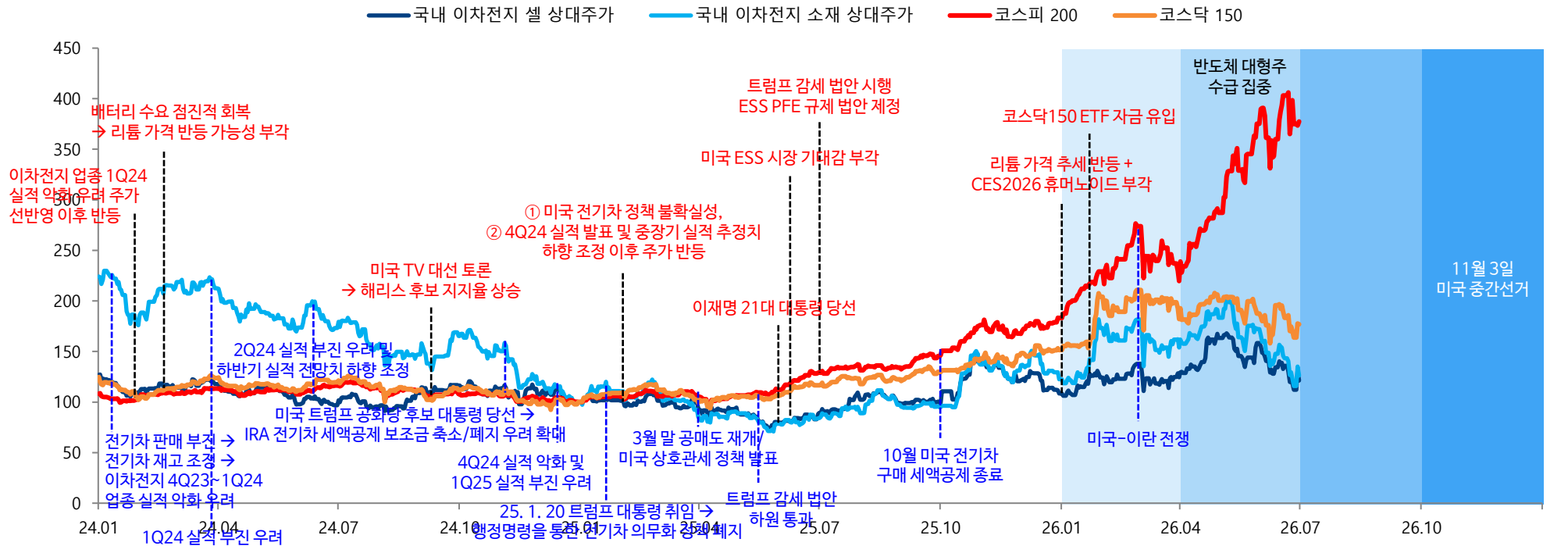
## 배터리 셀 업체들의 증장기 실적 개선에 대한 가시성 확대, 반도체 수급 풀림 완화될 경우 이차전지 섹터 관심 재차 확대 예상

- 국내 이차전지 업종에 대한 Neutral 투자 의견은 유지하나, 현 시점에서는 업종 내에서 실적 개선 가시성과 정책 수혜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배터리 셀 업체 중심의 선별적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 향후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 AI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에 따른 미국 ESS 시장의 가파른 수요 성장, 그리고 공급망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 수혜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실적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최근 국내 이차전지 섹터 주가는 국내 증시 조정과 반도체 업종으로의 수급 풀림이 맞물리며 5월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 배터리 셀 업체들의 주가는 평균 약 28% 하락했으며, 소재 업체 주가 역시 평균 38% 가량 조정. 이 과정에서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게 낮아짐.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의 주가는 2028년 예상 실적 기준 각각 P/E 21배, 19배 수준으로, 2020~2023년 EV 중심 주가 랠리 당시와 비교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된 상태. 향후 반도체 업종으로의 수급 풀림이 완화되는 국면에서는 증장기 실적 성장성이 높은 이차전지 업종에 대한 관심이 재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

- 주가 측면에서는 2Q26 배터리 셀 업체들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또한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ESS 관련 정책 변화 기대감이 선반영될 가능성도 국내 이차전지 업종 주가에 우호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

국내 이차전지 업종 상대주가



자료: Quantiwise, iM증권  
 주: 2025. 01. 01 = 100

## LG에너지솔루션 Buy(Maintain)\_TP 620,000원

- 동사의 2Q26 실적은 매출 7.6조원(+25% YoY, +15% QoQ), 영업 이익 2,290억원(-54% YoY, 흑자전환 QoQ)을 기록하며 시장기대치 (매출 7.2조원, 영업이익 2,029억원)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

- AMPC 규모는 미국 ESS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약 28% 증가한 2,430억원으로 추정

- 자동차 전지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 예상. 2Q26에도 미국 GM 얼티엄셀즈 생산 라인은 EV 수요 둔화와 생산조정 영향으로 여전히 가동 중단 중

- 다만 유럽항 물량은 전분기 대비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자동차 전지 부문의 추가적인 실적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반면 ESS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로 ESS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ESS 매출은 전분기 대비 약 40% 증가하고, 손익도 가동률 상승과 AMPC 효과로 뚜렷한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소형전지도 양호한 흐름. 전방 고객사인 Tesla 판매 호조에 힘입어 원형전지 출하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어 매출 회복과 수익성 방어에 기여할 전망

- 참고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일부 환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추가적인 이익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듯

- 향후 AIDC항 ESS의 수요가 급증할 전망. AIDC는 기존 DC 대비 전력 사용량이 크고, 전력 부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높음. 이에 따라 ESS는 발전 부하 평탄화, 상위 전력 인프라 보호, 전력 품질 유지, 피크 전력 대응 등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

- 최근 동사가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과 ESS 공급 관련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

LG에너지솔루션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원)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F	3Q26F	4Q26F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6,723	6,056	6,065	6,474	6,555	7,559	8,046	9,037	25,319	31,196	41,002	49,191
xEV(중대형)	4,631	4,056	3,658	2,947	2,751	2,782	2,819	3,202	13,918	11,554	13,531	15,247
소형	492	502	774	1,645	1,854	2,623	2,973	3,539	3,139	10,990	17,251	22,095
ESS	1,600	1,498	1,633	1,883	1,949	2,153	2,254	2,296	6,615	8,653	10,220	11,850
YoY 증감률					-2%	25%	33%	40%		23%	31%	20%
QoQ 증감률					1%	15%	6%	12%				
매출원가	5,253	4,563	4,253	5,371	5,314	6,075	6,364	7,061	19,440	24,814	30,930	36,054
매출원가율	78%	75%	70%	83%	81%	80%	79%	78%	77%	80%	75%	73%
매출총이익	1,012	1,002	1,447	771	1,052	1,484	1,682	1,976	4,232	6,193	10,072	13,137
매출총이익률	15%	17%	24%	12%	16%	20%	21%	22%	17%	20%	25%	27%
판매비 및 관리비	1,095	1,001	1,211	1,226	1,449	1,255	1,277	1,411	4,533	5,393	6,559	7,760
판매비율	16%	17%	20%	19%	22%	17%	16%	16%	18%	17%	16%	16%
영업이익	375	492	601	-122	-208	229	404	564	1,346	990	3,513	5,377
(AMPC)	458	491	365	333	190	243	285	363	1,647	1,081	1,973	2,830
(AMPC 제외 이익)	-83	1	236	-455	-397	-14	119	201	-301	-91	1,540	2,547
영업이익률	6%	8%	10%	-2%	-3%	3%	5%	6%	5%	3%	9%	11%
YoY 증감률	138%	152%	34%	적자지속	적자전환	-54%	-33%	흑자전환	134%	-26%	255%	53%
QoQ 증감률	흑자전환	31%	22%	적자전환	적자지속	흑자전환	77%	40%				
세전이익	365	-27	553	-476	-859	18	635	870	414	664	3,320	5,299
당기순이익	227	91	536	-772	-944	-32	653	888	81	564	2,822	4,504
(지배주주순이익)	-146	-297	247	-877	-676	134	227	901	-1,073	586	2,780	3,993
당기순이익률	3%	1%	9%	-12%	-14%	0%	8%	10%	0%	2%	7%	9%
YoY 증감률	7%	흑자전환	-4%	적자지속	적자전환	적자전환	22%	흑자전환	-76%	598%	400%	60%
QoQ 증감률	흑자전환	-60%	492%	적자전환	적자지속	적자지속	흑자전환	36%				

자료: LG에너지솔루션, iM증권

## 삼성SDI Buy(Maintain)\_TP 700,000원

- 동사의 2Q26 실적은 매출 3.7조원(+16% YoY, +3% QoQ), 영업이익 70억원(흑자전환 YoY/QoQ)으로 시장기대치(매출 3.7조원, 영업이익 -699억원)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전지는 주력 고객사인 BMW향 물량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분기에 반영되었던 Stellantis의 최소 구매 물량 미달분에 대한 보상금 효과가 제거되면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

- ESS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AIDC 투자 증가로 점진적인 매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다만 지난해 수주한 국내 중앙계약시장 프로젝트형 공급이 하반기로 지연되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

- 소형전지는 AIDC향 BBU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 다만 과거 공급 과잉 국면에서 수주했던 파워튠, e-bike향 물량이 아직 남아있어 제품 믹스와 수익성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소형전지 적자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전자재료 부문은 반도체 소재의 견조한 출하 흐름 속에 OLED 소재 도 비수기 영향을 벗어나면서 양호한 실적이 기대

- 향후 AIDC향 ESS의 수요가 급증할 전망. AIDC는 기존 DC 대비 전력 사용량이 크고, 전력 부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높음. 이에 따라 ESS는 발전 부하 평탄화, 상위 전력 인프라 보호, 전력 품질 유지, 피크 전력 대응 등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

- 최근 동사가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과 ESS 공급 관련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

- 당사는 AIDC에서 새롭게 발생할 ESS 수요를 고려할 때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2030년 미국 ESS 수요 전망치(150~180GWh)는 크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이에 따라 동사의 중장기 실적 가시성을 높여줄 ESS 신규 수주는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

삼성SDI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원)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F	3Q26F	4Q26F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3,177	3,179	3,052	3,859	3,576	3,699	4,023	4,582	13,267	15,881	20,316	23,411
전지 사업부	2,981	2,961	2,820	3,622	3,354	3,466	3,781	4,330	12,390	14,931	19,282	22,256
소형2차전지	713	920	972	957	1,100	1,198	1,246	1,210	3,567	4,753	5,113	5,597
자동차	1,666	1,397	1,202	1,662	1,306	1,224	1,356	1,624	5,927	5,509	6,060	7,318
ESS	602	644	646	1,004	948	1,044	1,179	1,497	2,896	4,669	8,109	9,341
전자재료 사업부	196	218	232	237	222	233	243	252	883	949	1,035	1,154
YoY	-38%	-29%	-22%	3%	13%	16%	32%	19%	-23%	20%	28%	15%
QoQ	-15%	0%	-4%	26%	-7%	3%	9%	14%				
영업이익	-434	-398	-591	-299	-156	7	93	310	-1,722	254	1,836	2,754
전지 사업부	-452	-431	-630	-339	-177	-29	50	266	-1,852	111	1,671	2,570
소형	-230	-75	-68	-121	-109	-67	-79	-84	-494	-338	-288	-206
자동차(AMPC 포함)	-265	-370	-530	-276	-140	-60	-20	91	-1,441	-129	310	861
ESS(AMPC 포함)	43	14	-32	58	72	98	149	259	83	578	1,649	1,916
전자재료 사업부	18	33	39	39	21	36	42	44	129	143	165	184
YoY	적자전환	적자전환	적자전환	적자지속	적자지속	흑자전환	흑자전환	흑자전환	적자전환	흑자전환	623%	50%
QoQ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흑자전환	1168%	235%				
영업이익률	-14%	-13%	-19%	-8%	-4%	0%	2%	7%	-13%	2%	9%	12%
전지 사업부	-15%	-15%	-22%	-9%	-5%	-1%	1%	6%	-15%	1%	9%	12%
소형	-32%	-8%	-7%	-13%	-10%	-6%	-6%	-7%	-14%	-7%	-6%	-4%
자동차(AMPC 포함)	-16%	-26%	-44%	-17%	-11%	-5%	-1%	6%	-24%	-2%	5%	12%
ESS(AMPC 포함)	7%	2%	-5%	6%	8%	9%	13%	17%	3%	12%	20%	21%
전자재료 사업부	9%	15%	17%	17%	9%	15%	17%	17%	15%	15%	16%	16%
지분법 관련 손익	130	128	229	351	115	76	83	54	838	328	476	442
세전이익	-357	-341	-430	-236	-43	-100	-5	156	-1,364	7	1,790	2,707
당기순이익	-216	-167	6	-208	56	-104	-6	58	-585	4	1,476	2,250
당기순이익률	-7%	-5%	0%	-5%	2%	-3%	0%	1%	-4%	0%	7%	10%
YoY	적자전환	적자전환	적자전환	적자지속	적자전환	적자전환	적자전환	흑자전환	적자전환	적자지속	흑자전환	52%
QoQ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흑자전환				

자료: 삼성SDI, iM증권

## ✓ 펀더멘탈과는 별개로 패시브 자금 수급 유입에 따른 이차전지 소재 업체들의 주가 상승 가능성 존재

(단위: 십억원)	1Q26	2Q26F	3Q26F	4Q26F	2025	2026F	2027F
매출액	605	717	980	1,134	2,532	3,437	5,596
YoY	-4%	-8%	57%	128%	-9%	36%	63%
QoQ	22%	18%	37%	16%			
영업이익	21	28	36	46	143	131	269
영업이익률	3%	4%	4%	4%	6%	4%	5%
YoY	823%	-43%	-29%	10%	흑자전환	-9%	106%
QoQ	-50%	34%	29%	26%			
세전이익	12	8	16	25	82	61	191
당기순이익	12	4	12	22	92	50	158
순이익률	2%	1%	1%	2%	4%	1%	3%
YoY	흑자전환	-88%	-75%	19%	흑자전환	-45%	214%
QoQ	-33%	-66%	199%	78%			

자료: 에코프로비엠, iM증권

(단위: 십억원)	1Q26	2Q26F	3Q26F	4Q26F	2025	2026F	2027F
매출액	740	890	952	980	2,155	3,561	4,504
YoY	103%	71%	46%	59%	13%	65%	26%
QoQ	20%	20%	7%	3%			
영업이익	117	66	62	54	-157	299	302
영업이익률	16%	7%	6%	5%	-7%	8%	7%
YoY	흑자전환	흑자전환	180%	-35%	적자지속	흑자전환	1%
QoQ	42%	-44%	-6%	-13%			
세전이익	-56	10	6	-2	-568	-41	113
당기순이익	-65	15	11	3	-535	-35	103
순이익률	-9%	2%	1%	0%	-25%	-1%	2%
YoY	적자지속	흑자전환	흑자전환	흑자전환	적자지속	적자지속	흑자전환
QoQ	적자지속	흑자전환	-27%	-71%			

자료: 엘앤에프,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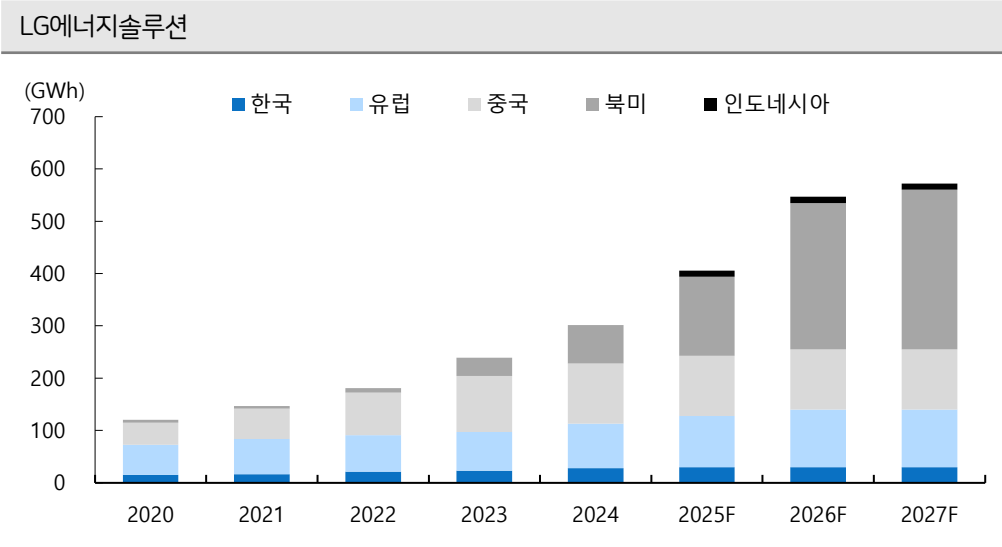
(단위: 억원)	1Q26	2Q26F	3Q26F	4Q26F	2025	2026F	2027F
매출액	359	402	437	519	2,619	1,716	2,765
YoY	-38%	-51%	-45%	24%	20%	-34%	61%
QoQ	-14%	12%	9%	19%			
영업이익	-732	-691	-721	-702	-2,464	-2,846	-2,380
영업이익률	-204%	-172%	-165%	-135%	-94%	-166%	-86%
YoY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QoQ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세전이익	-906	-865	-895	-875	-3,238	-3,542	-3,085
당기순이익	-818	-560	-590	-570	-2,114	-2,537	-2,112
순이익률	-228%	-139%	-135%	-110%	-81%	-148%	-76%
YoY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QoQ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자료: SK아이이테크놀로지,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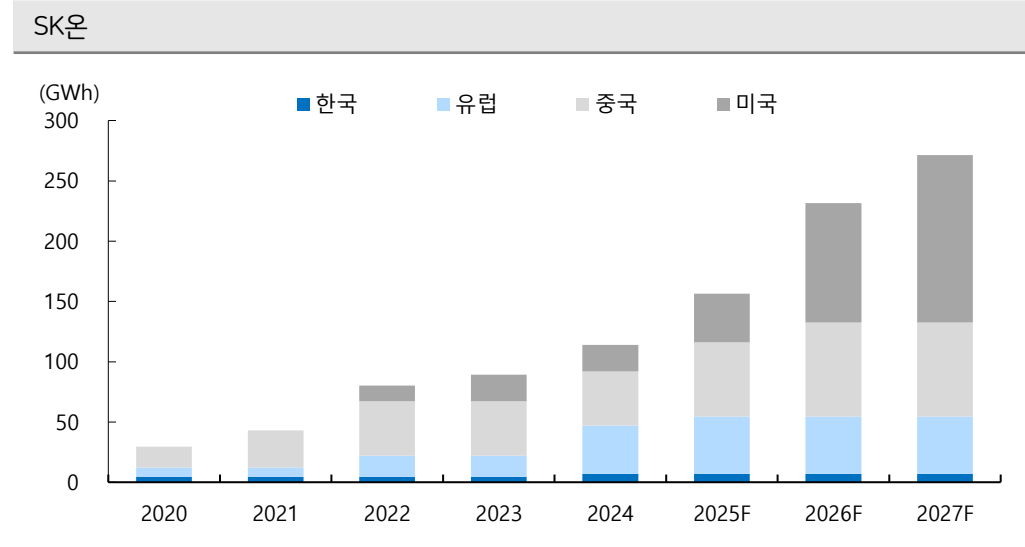
(단위: 억원)	1Q26	2Q26F	3Q26F	4Q26F	2025	2026F	2027F
매출액	327	358	390	434	1,117	1,509	2,357
YoY	46%	22%	25%	51%	27%	35%	56%
QoQ	14%	9%	9%	11%			
영업이익	28	36	35	41	46	140	255
영업이익률	8%	10%	9%	9%	4%	9%	11%
YoY	838%	92%	292%	흑자전환	55%	202%	83%
QoQ	흑자전환	29%	0%	16%			
세전이익	66	16	16	21	23	119	238
당기순이익	65	9	9	15	16	98	197
순이익률	20%	3%	2%	3%	1%	6%	8%
YoY	756%	-147%	-44%	21%	-188%	498%	101%
QoQ	436%	-86%	-1%	62%			

자료: 나노신소재,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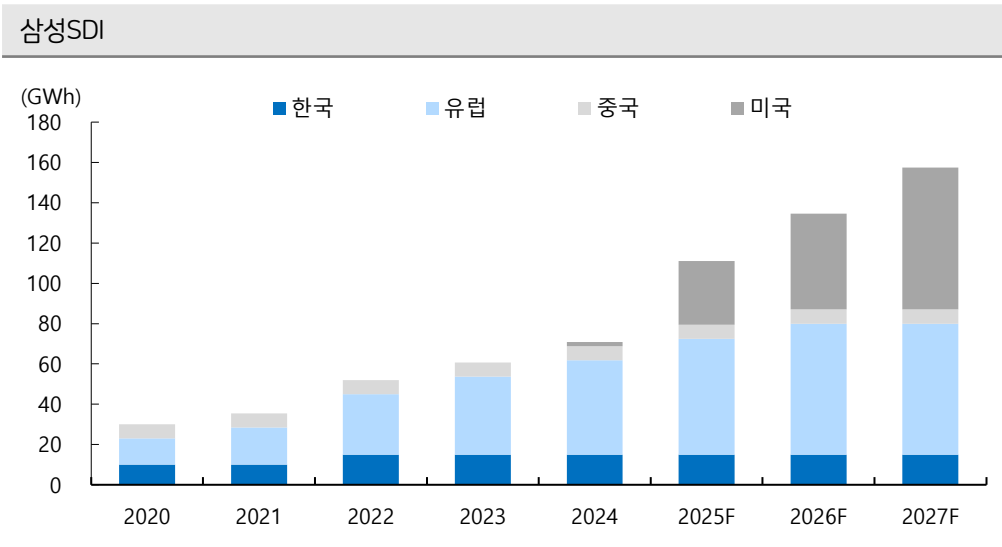
✓ 최근 북미, 유럽 전기차 수요 둔화로 주요 완성차 제조사 & 배터리 셀 업체들의 중장기 캐파 증설 계획 조정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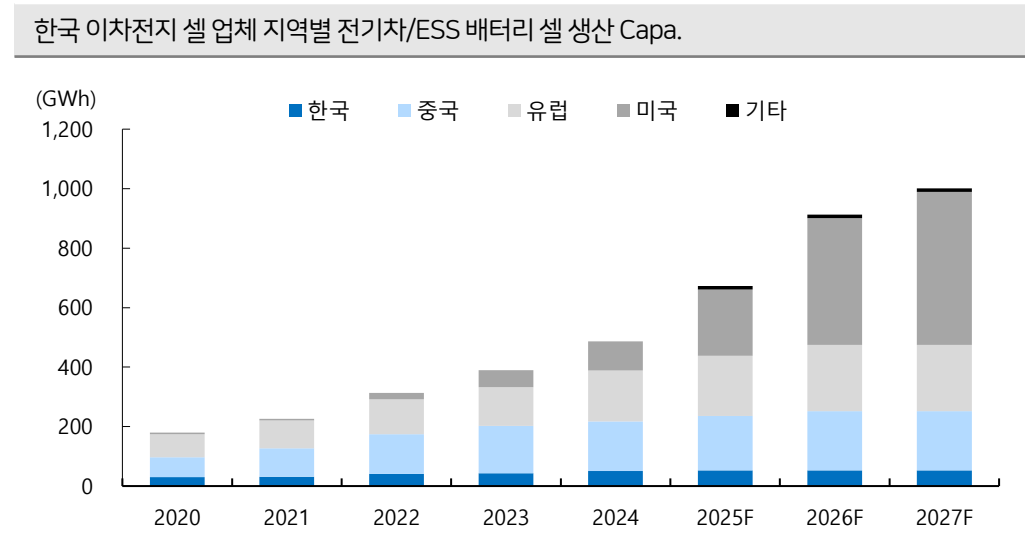
자료: iM증권



자료: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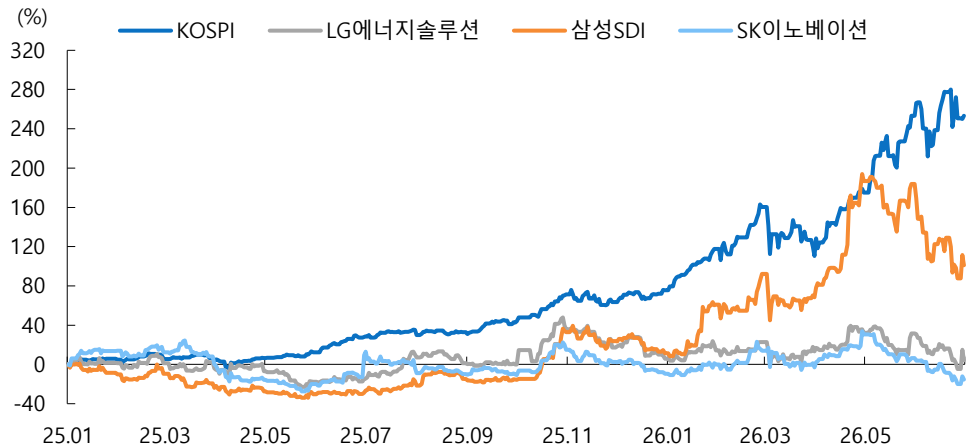
자료: iM증권



자료: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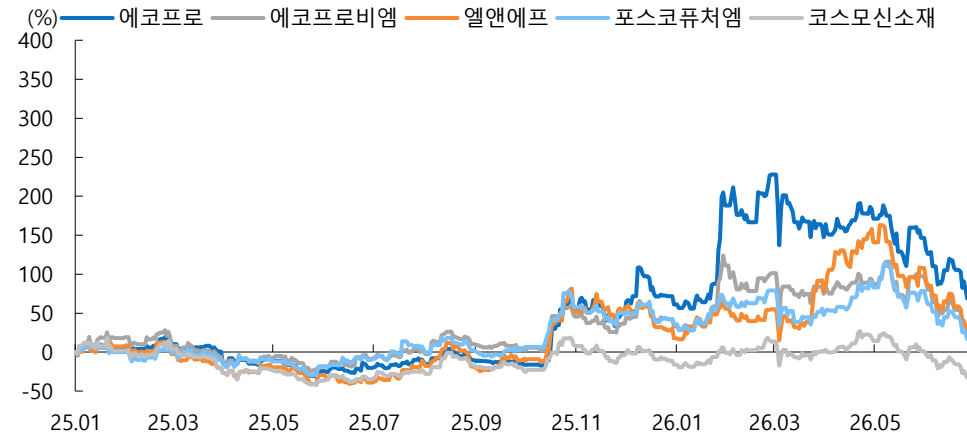
✓ 국내 증시 조정과 반도체 업종으로의 수급 쏠림이 맞물리며 5월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

이차전지 대형주 Vs. KOSPI 상대주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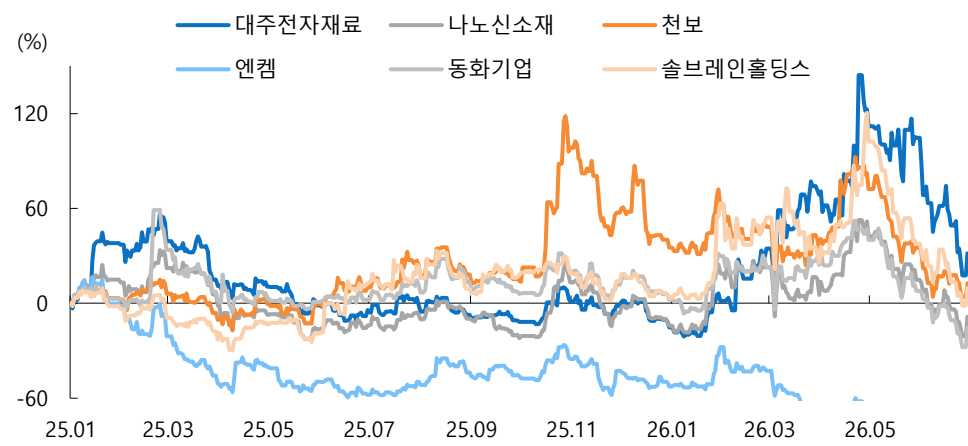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iM증권  
주: 2025.01.01 = 0%

이차전지 양극재 상대주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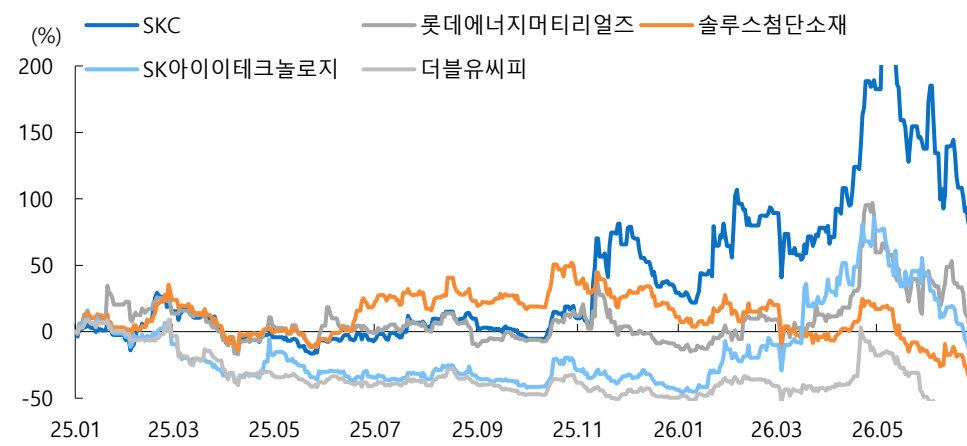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iM증권  
주: 2025.01.01 = 0%

이차전지 소재 상대주가 비교(실리콘음극재/CNT도전재, 전해액/전해질)



자료: Quantiwise, iM증권  
주: 2025.01.01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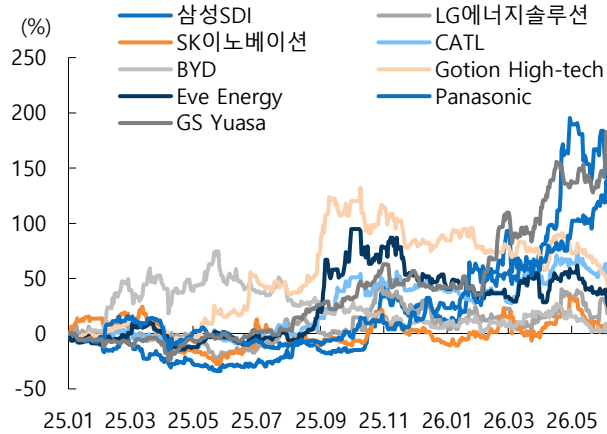
이차전지 소재 상대주가 비교(전지박, 분리막)



자료: Quantiwise, iM증권  
주: 2025.01.01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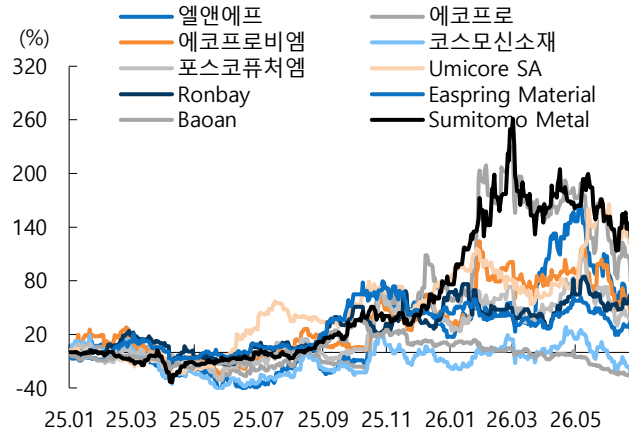
✓ 국내 증시 조정과 반도체 업종으로의 수급 쏠림이 맞물리며 5월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

이차전지 셀 상대주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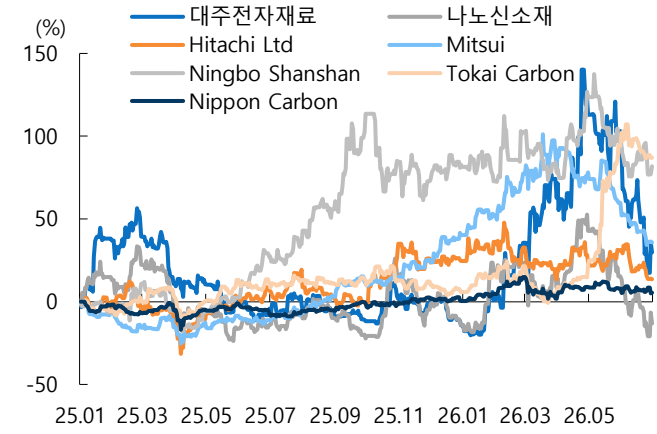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M증권  
주: 2025.01.01 = 0%

이차전지 양극재 상대주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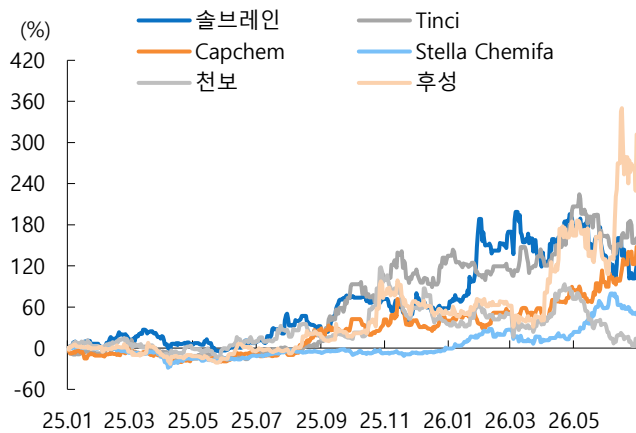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M증권  
주: 2025.01.01 = 0%

이차전지 음극재 상대주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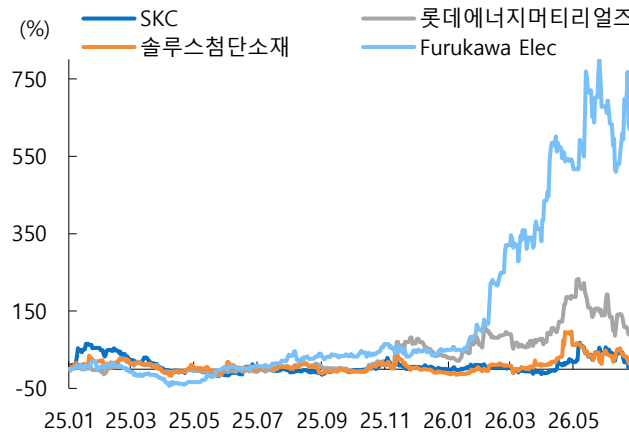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M증권  
주: 2025.01.01 = 0%

이차전지 전해액/전해질 상대주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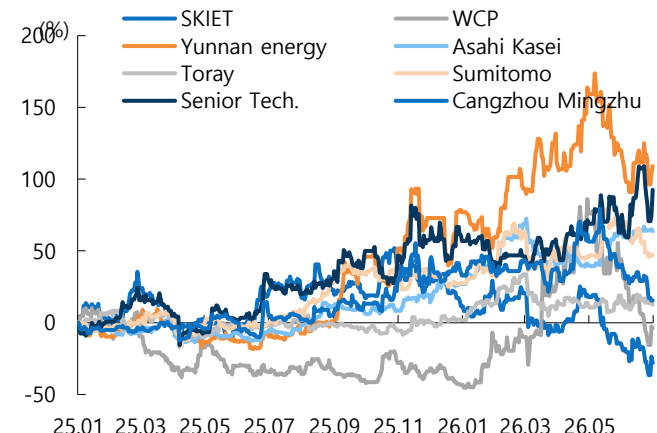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M증권  
주: 2025.01.01 = 0%

이차전지 전지박 상대주가 비교



자료: Bloomberg, iM증권  
주: 2025.01.01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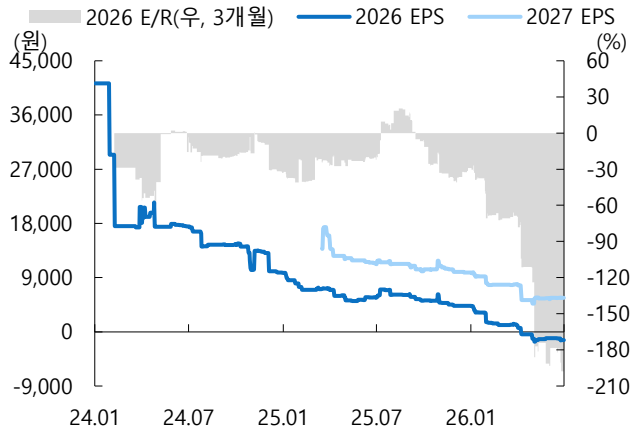
이차전지 분리막 상대주가 비교



자료: Bloomberg, iM증권  
주: 2025.01.01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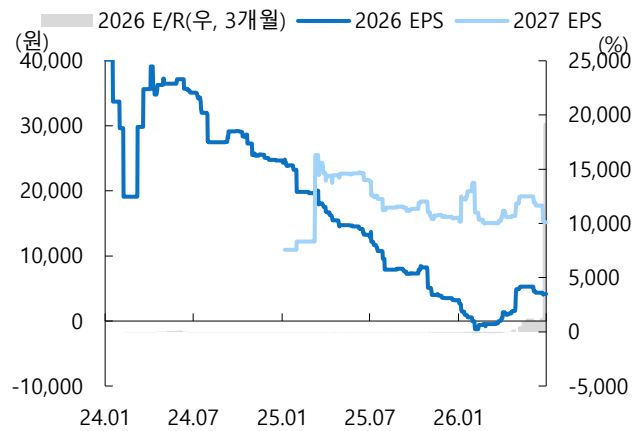
## ✓ 배터리 셀 - 2026년 배터리 셀 업체들의 EPS 컨센서스 하향 추세 마무리 국면 진입

LG에너지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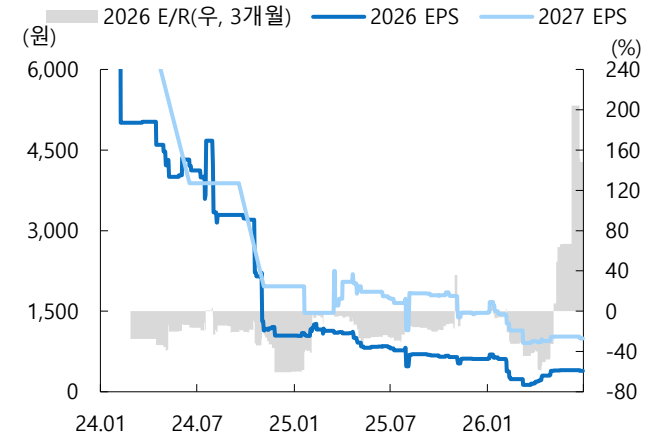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iM증권

삼성S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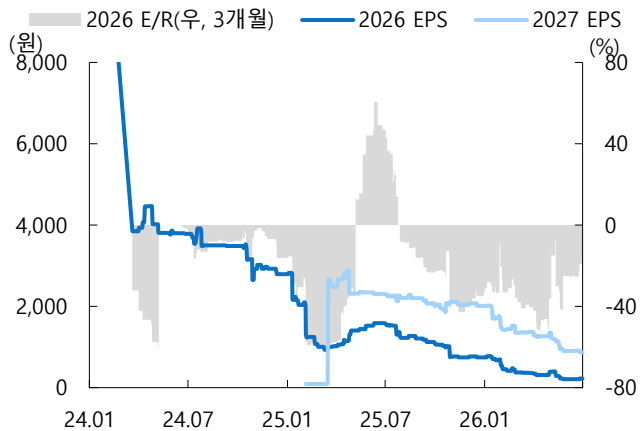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iM증권

에코프로비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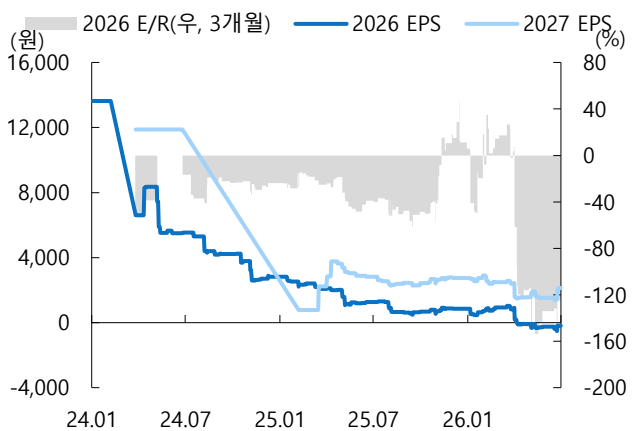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iM증권

포스코퓨처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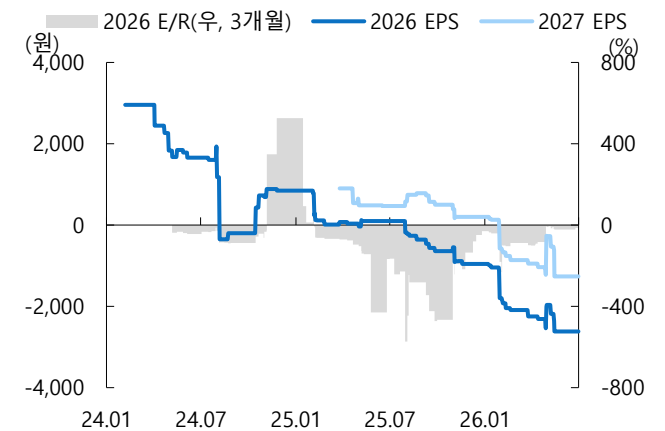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iM증권

엘엔에프



자료: Quantwise,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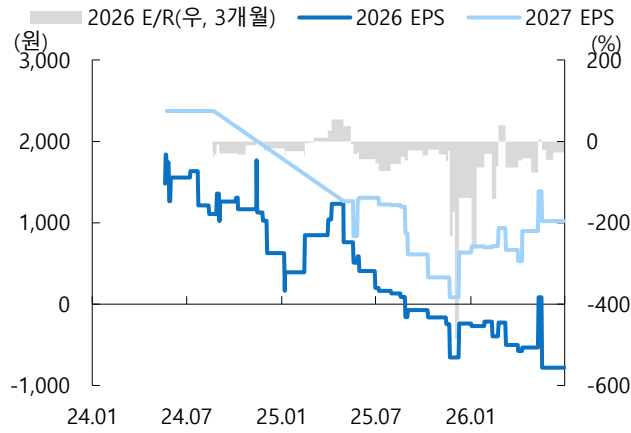
SK아이이테크놀로지



자료: Quantwise,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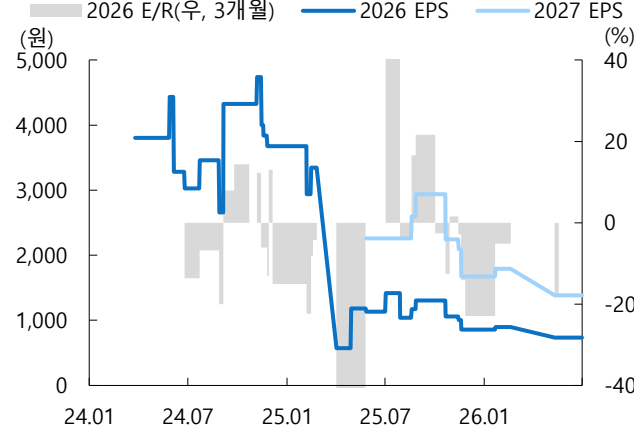
✓ 소재 - 국내 배터리 셀 수요 약세 우려 영향으로 소재 업체들에 대한 실적 눈높이 하향 조정 이후 마무리 국면 진입

## 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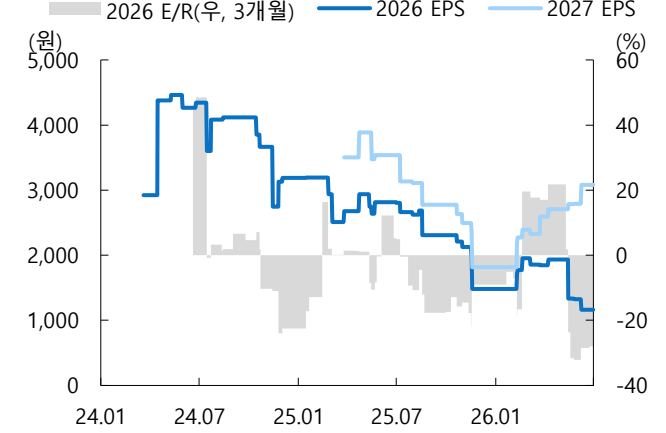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iM증권

## 나노신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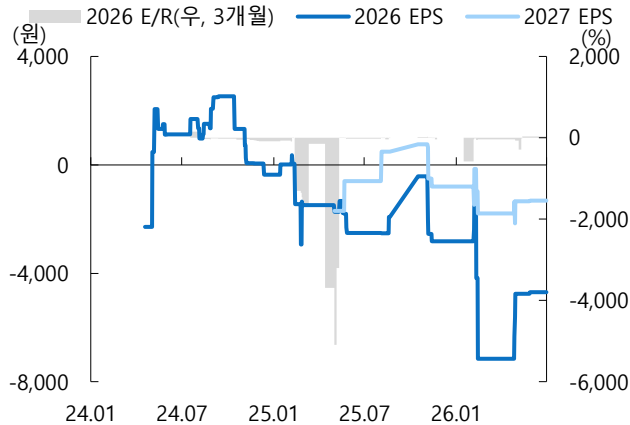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iM증권

## 대주전자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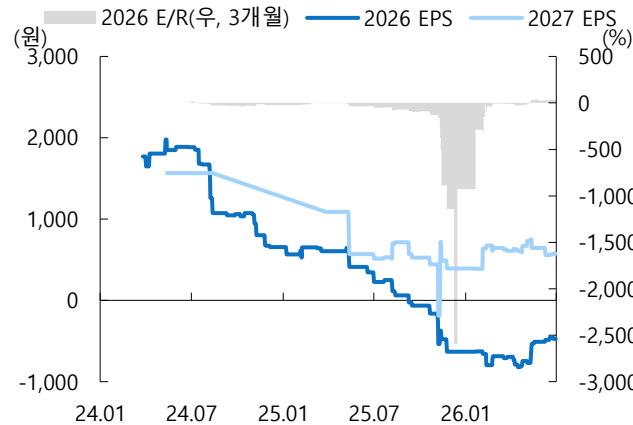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iM증권

## SK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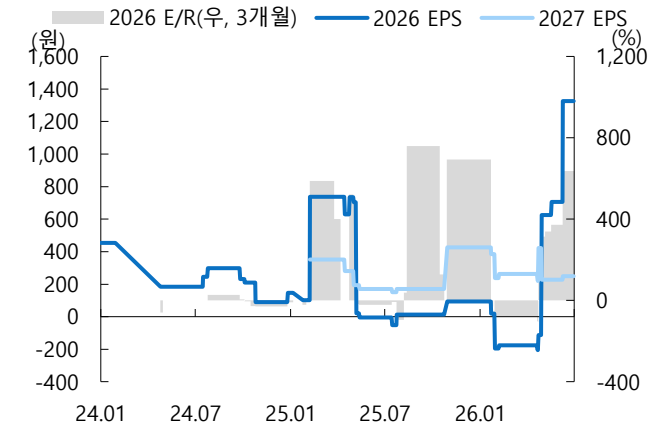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iM증권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자료: Quantwise,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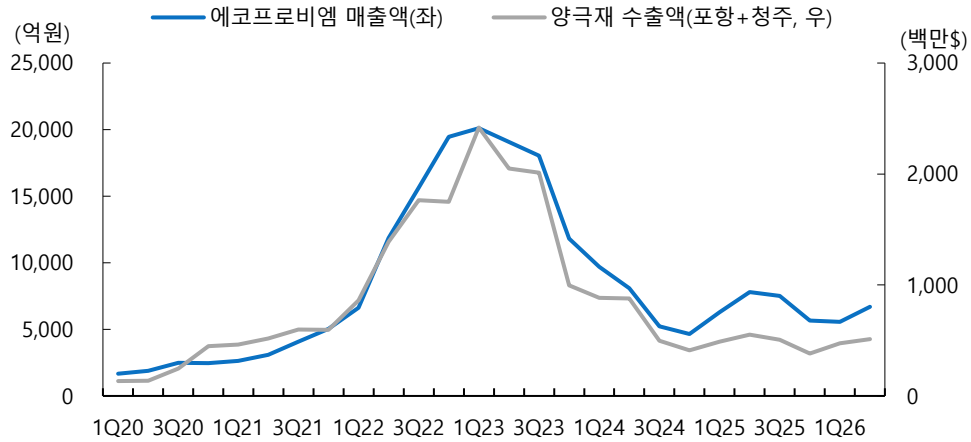
## 솔루스첨단소재



자료: Quantwise,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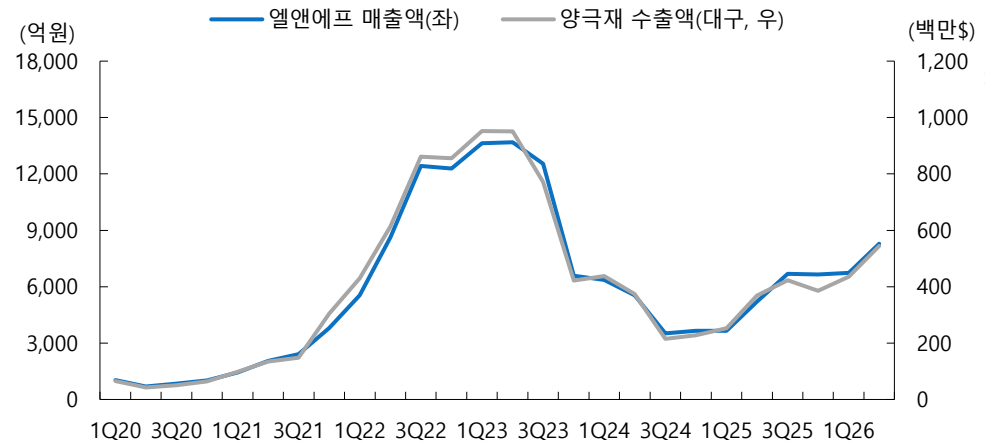
## ✓ 4, 5월 지역별 수출액 데이터에 근거한 엘앤에프와 더블유씨피의 2Q26 매출 회복세 전망

에코프로비엠 매출액과 양극재(포항+청주)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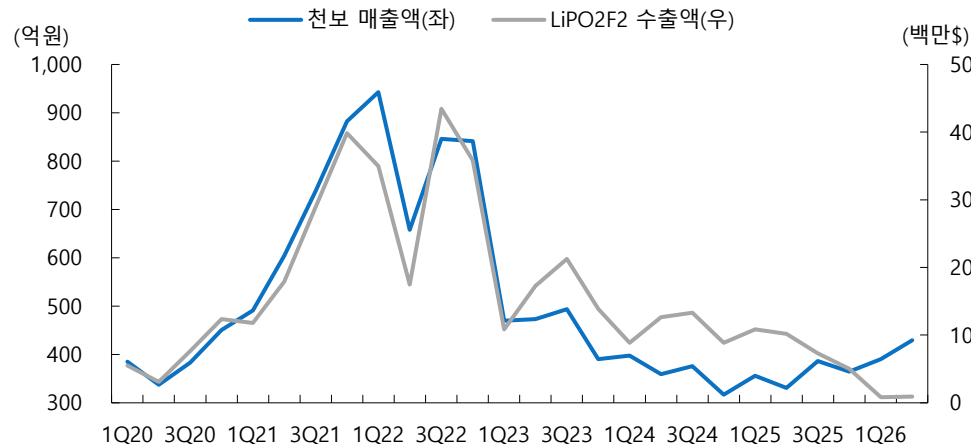
자료: KITA, Quantiwise, iM증권

엘앤에프 매출액과 양극재(대구)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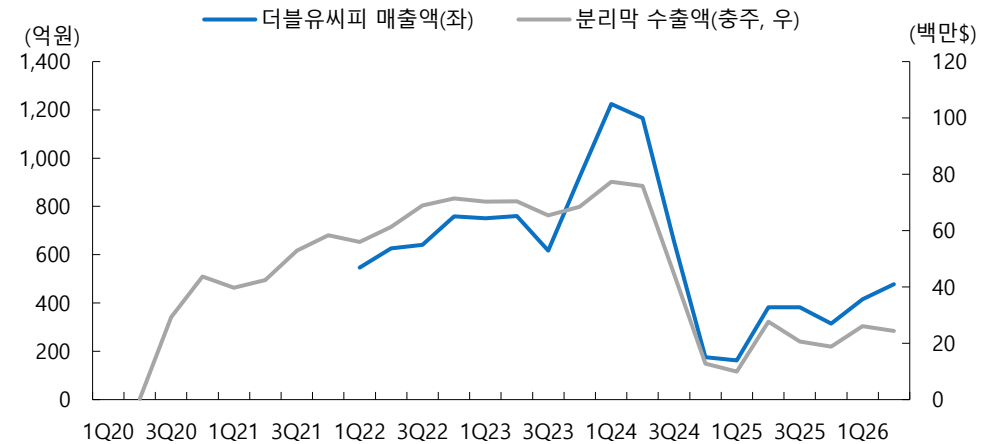
자료: KITA, Quantiwise, iM증권

천보 매출액과 P 전해질 수출액 추이



자료: KITA, Quantiwise,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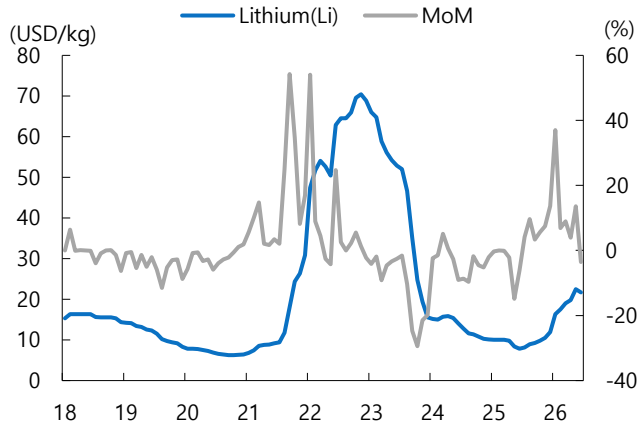
더블유씨피 매출액과 분리막(충주) 수출액 추이



자료: KITA, Quantiwise,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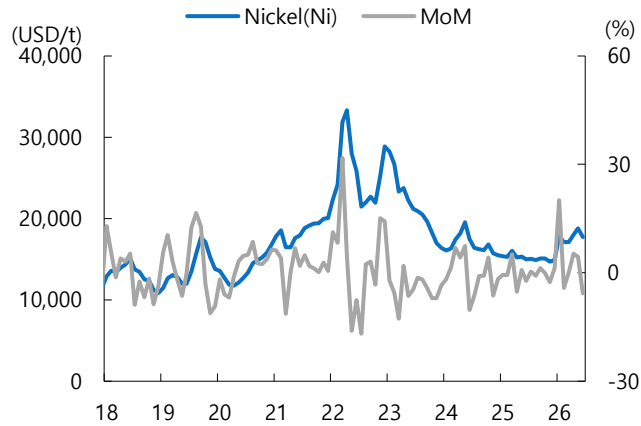
✓ 4Q25부터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 주요 소재 가격 상승 이후 최근 소폭 하락 반전

리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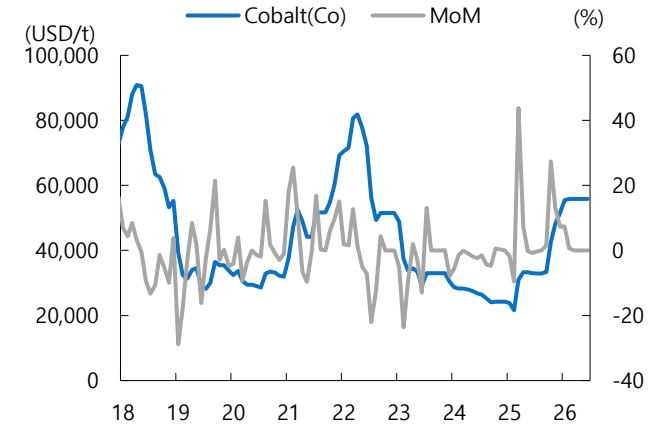
자료: 한국광물자원, iM증권

니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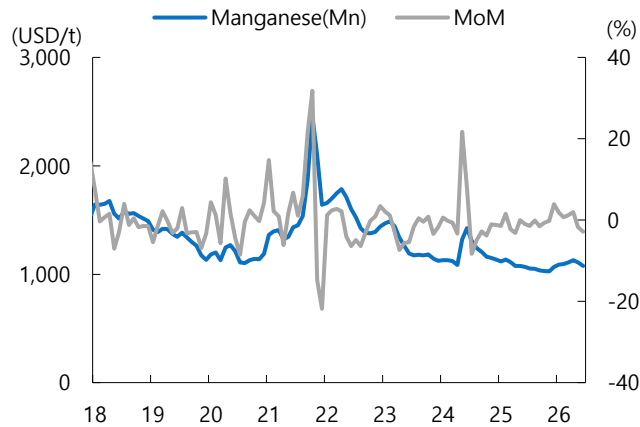
자료: 한국광물자원, iM증권

코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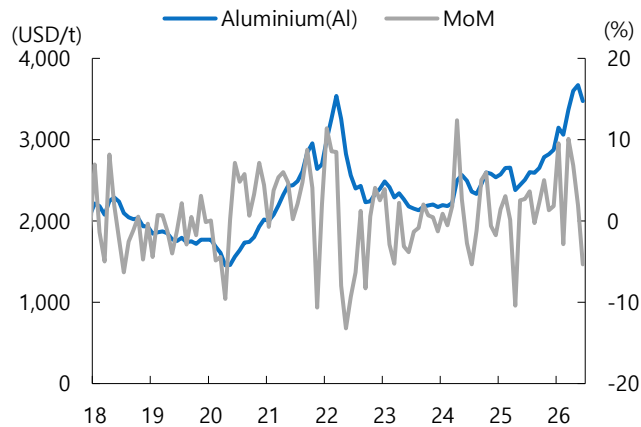
자료: 한국광물자원, iM증권

망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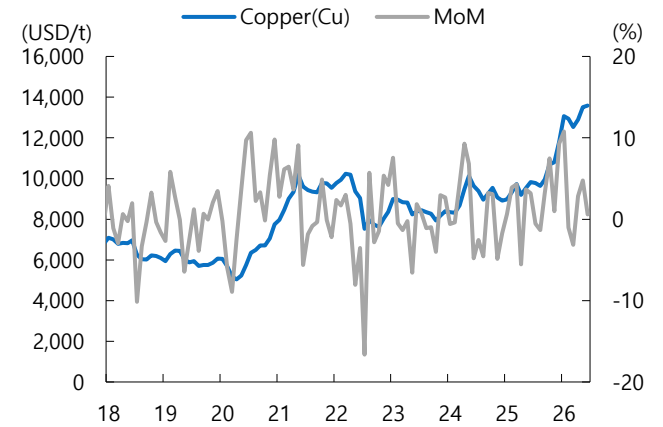
자료: 한국광물자원, iM증권

알루미늄



자료: 한국광물자원,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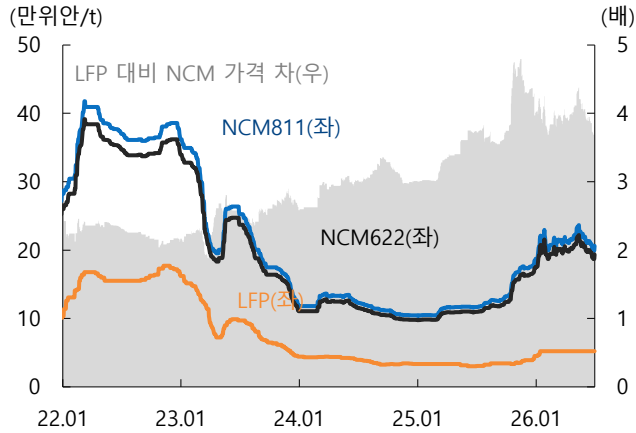
구리



자료: 한국광물자원,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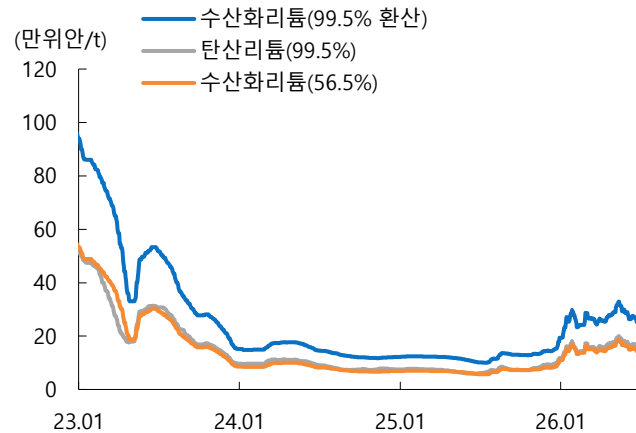
✓ 중국 내수 양극재 가격은 탄산리튬 가격 급등과 연동되며 4Q25 이후 상승세 지속해오다 5월부터 하락 반전

NCM/LFP 양극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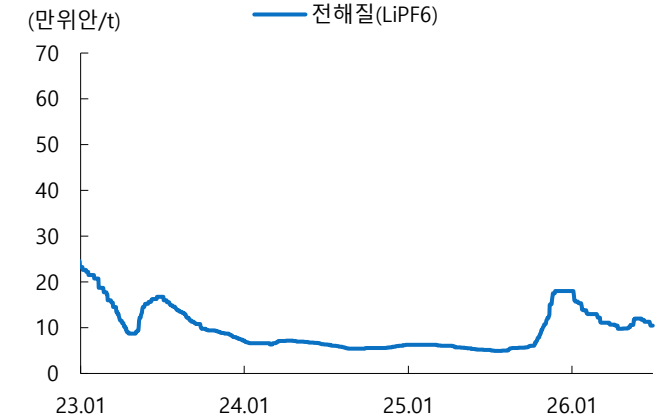
자료: Iccsino, Xinyu Information

수산화리튬/탄산리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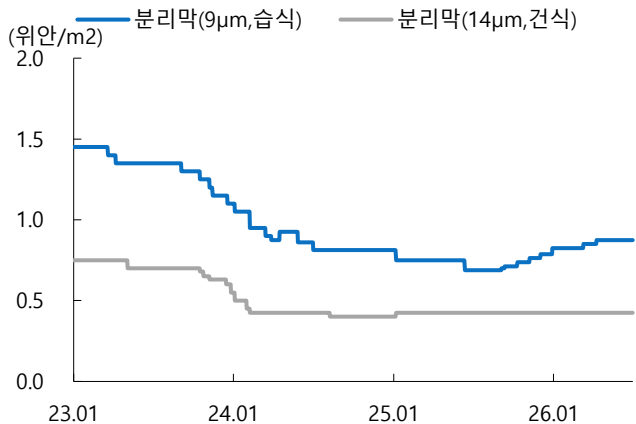
자료: Iccsino, Xinyu Information

LiPF<sub>6</sub> 전해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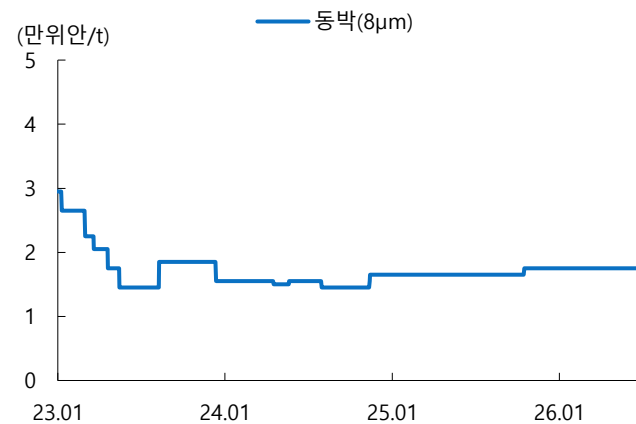
자료: Iccsino, Xinyu Information

분리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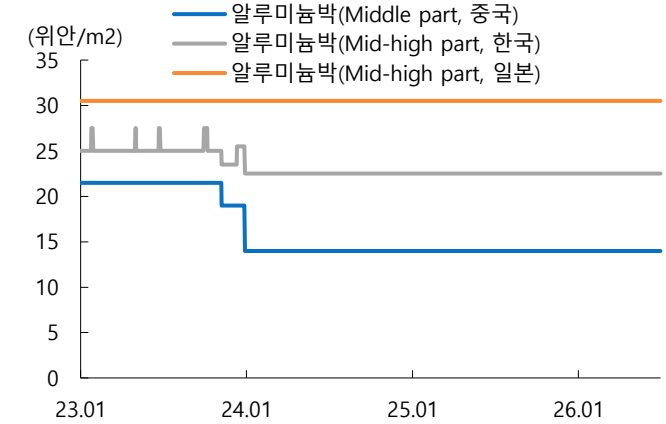
자료: Iccsino, Xinyu Information

동박



자료: Iccsino, Xinyu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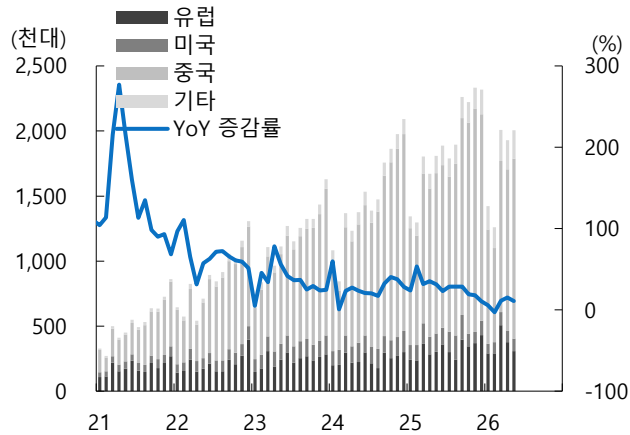
알루미늄박



자료: Iccsino, Xinyu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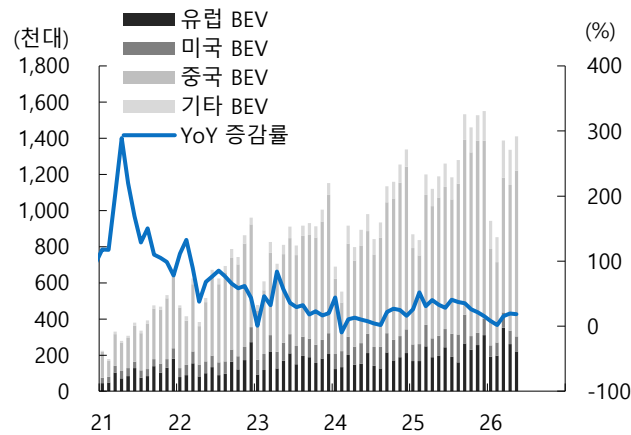
✓ 미국 5월 전기차 판매량 BEV 8.3만대(YoY: -25.3%), PHEV 1.2만대(YoY: -60.6%)

전세계 전기차(BEV+PHEV)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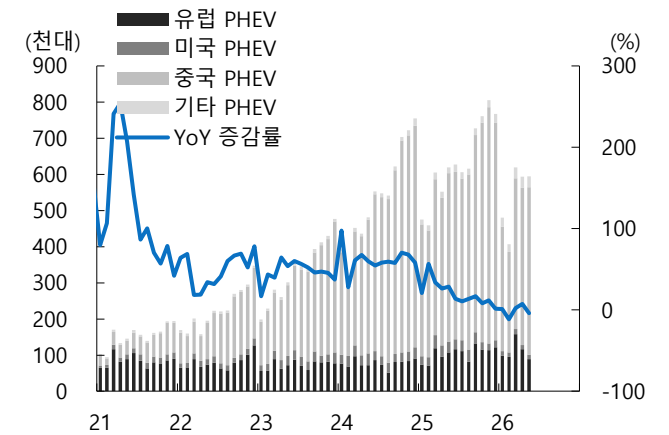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주: 유럽 일부 지역 미집계

전세계 BEV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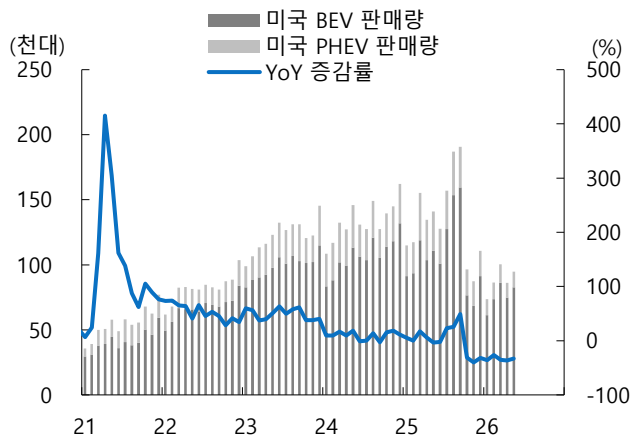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주: 유럽 일부 지역 미집계

전세계 PHEV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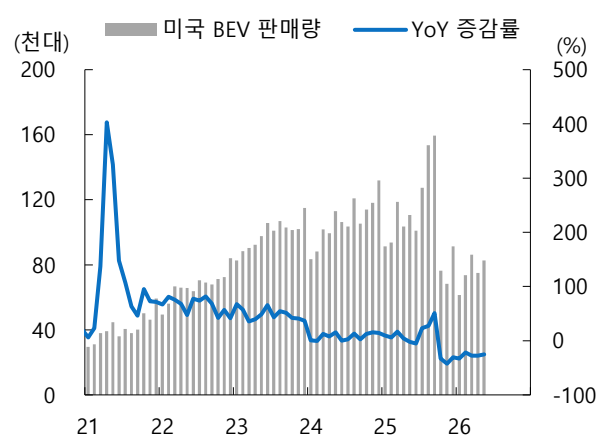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주: 유럽 일부 지역 미집계

미국 전기차(BEV+PHEV)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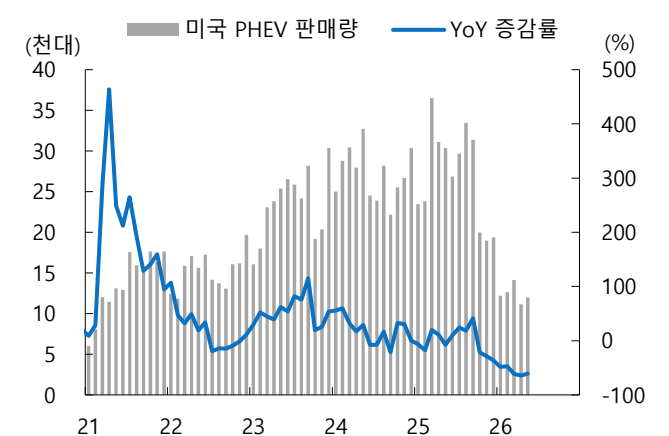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미국 BEV 판매량



자료: Marklines,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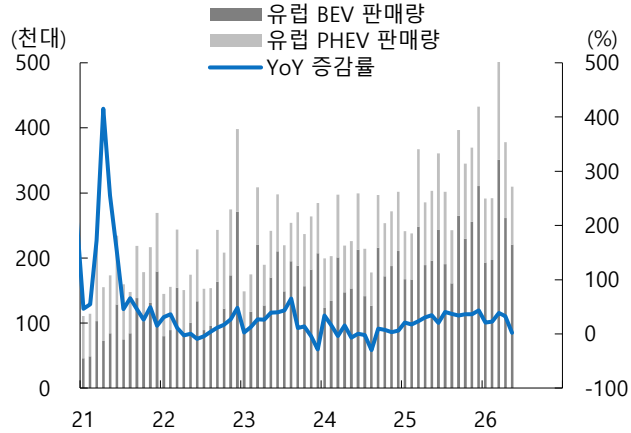
미국 PHEV 판매량



자료: Marklines,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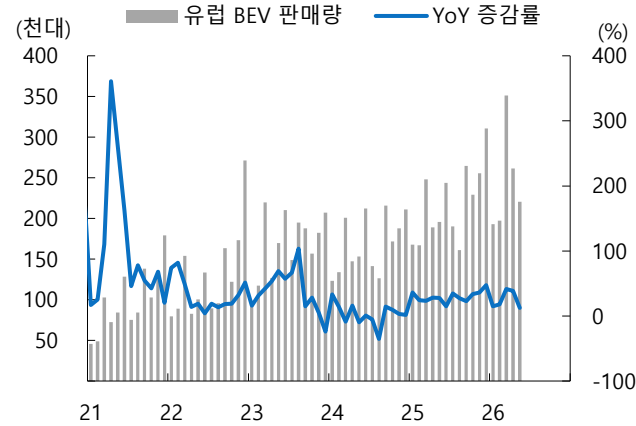
## ✓ 유럽 자동차 CO<sub>2</sub> 배출량 규제 영향으로 전기차 판매량 회복세 지속

유럽 전기차(BEV+PHEV)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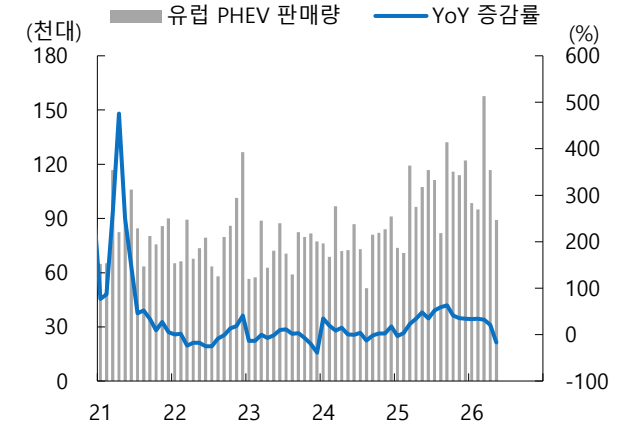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주: 유럽 일부 지역 미집계

유럽 BEV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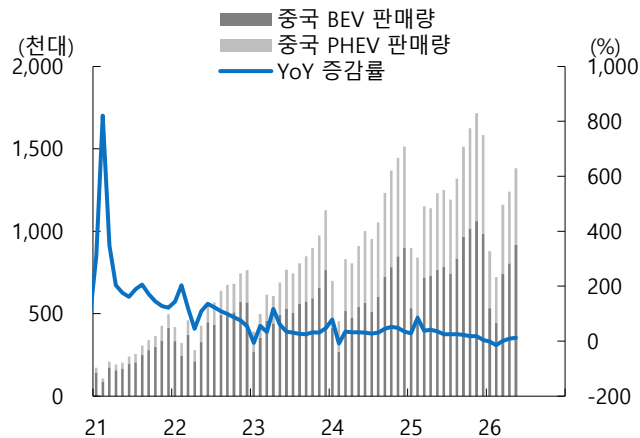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주: 유럽 일부 지역 미집계

유럽 PHEV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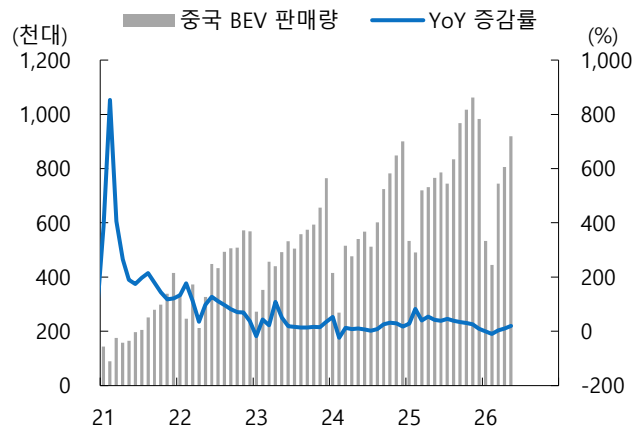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주: 유럽 일부 지역 미집계

중국 전기차(BEV+PHEV)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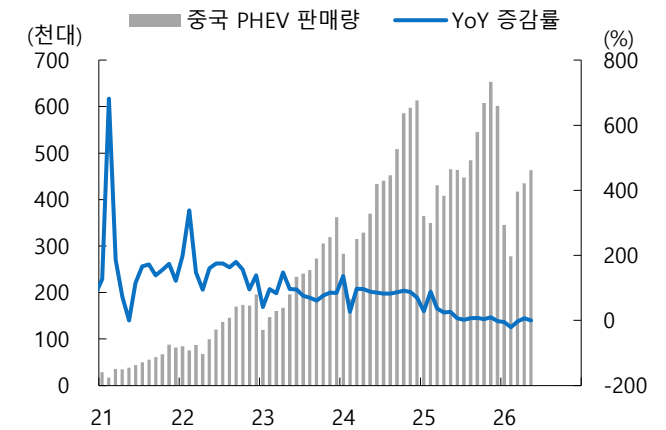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중국 BEV 판매량



자료: Marklines,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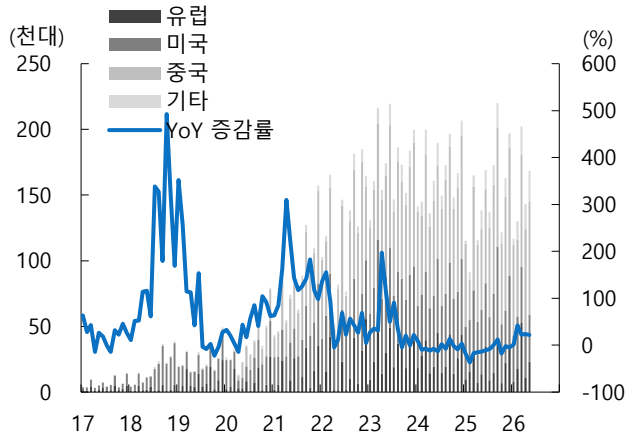
중국 PHEV 판매량



자료: Marklines,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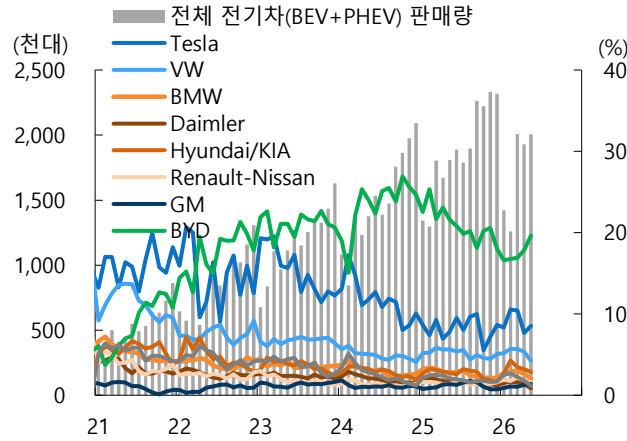
✓ 5월 전기차 침투율 - 미국 6.3%, 유럽 25.2%, 중국 52.6%, 기타 10.0%

TESLA 전기차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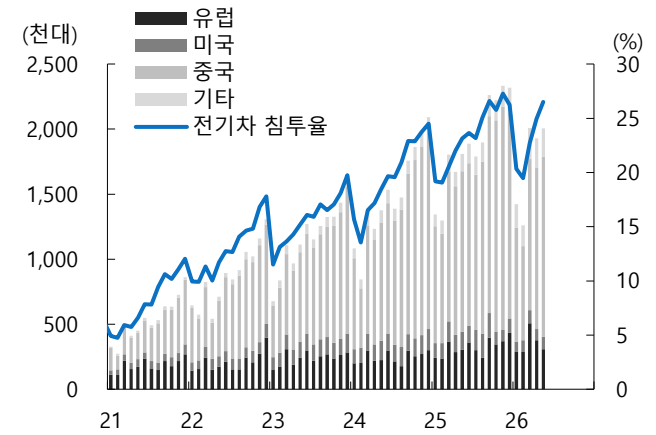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주요 업체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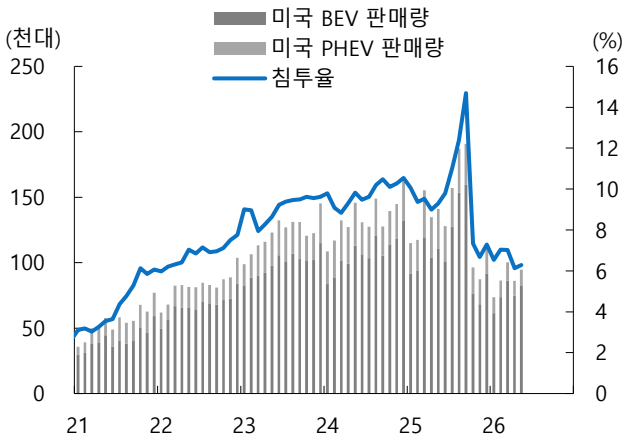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전세계 전기차(BEV+PHEV) 침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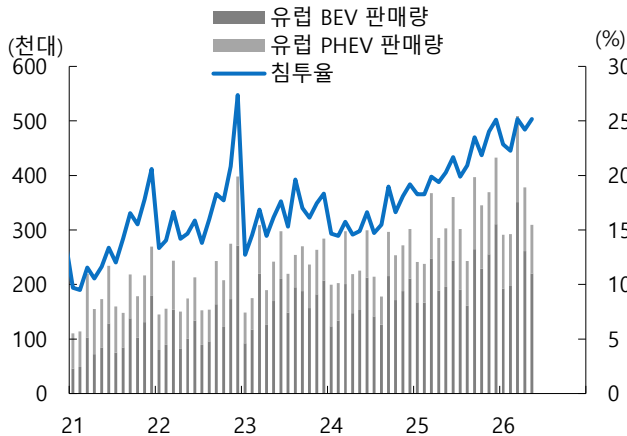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미국 전기차(BEV+PHEV) 침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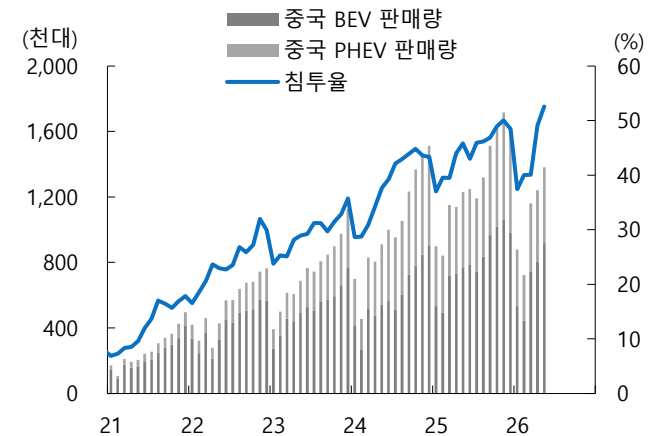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iM증권

유럽 전기차(BEV+PHEV) 침투율



자료: Marklines,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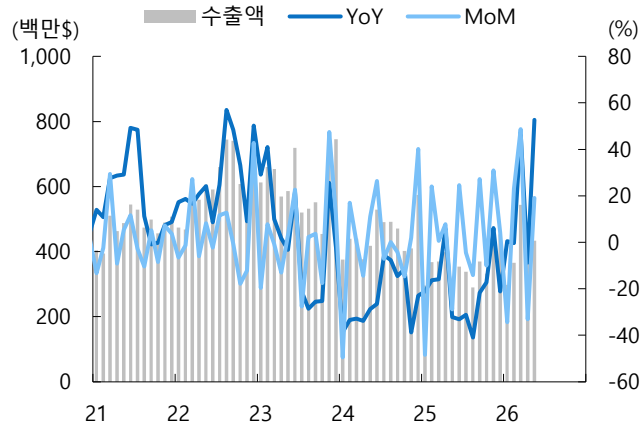
중국 전기차(BEV+PHEV) 침투율



자료: Marklines,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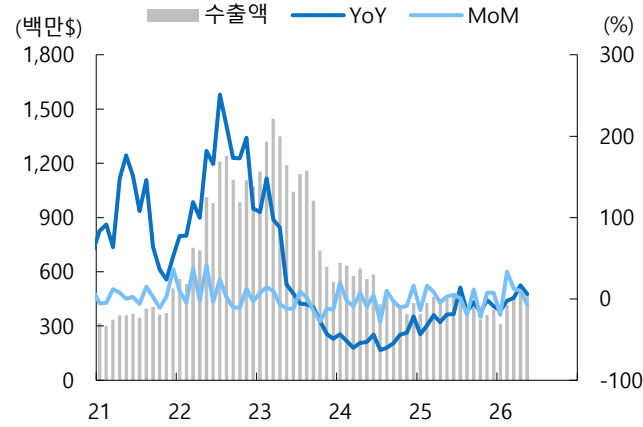
✓ 5월 리튬이온 배터리: YoY 53%, MoM +19%, 양극재: YoY +6%, MoM -7%, 엘앤에프: YoY +67%, MoM -1%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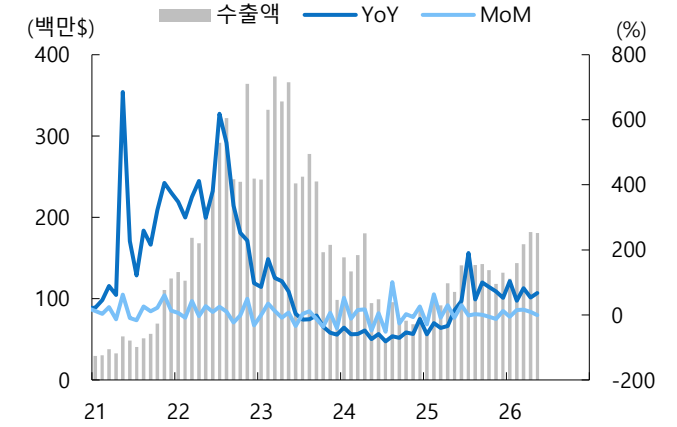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양극재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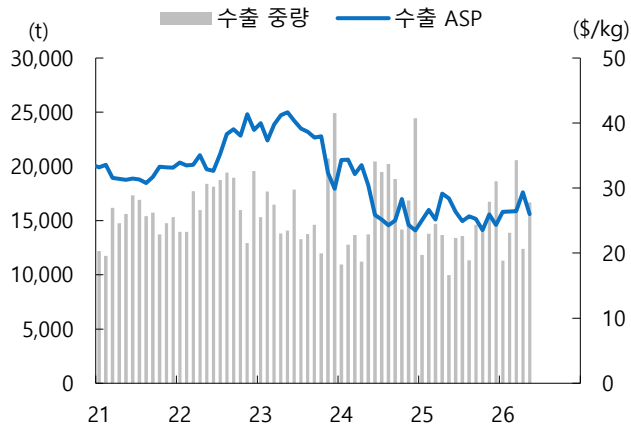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대구 양극재 수출액(엘앤에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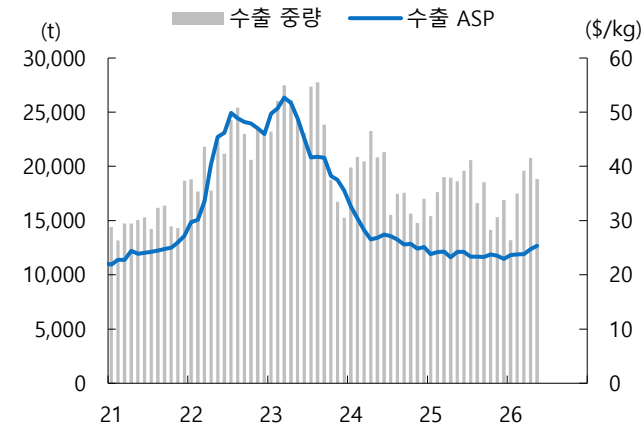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 중량 및 A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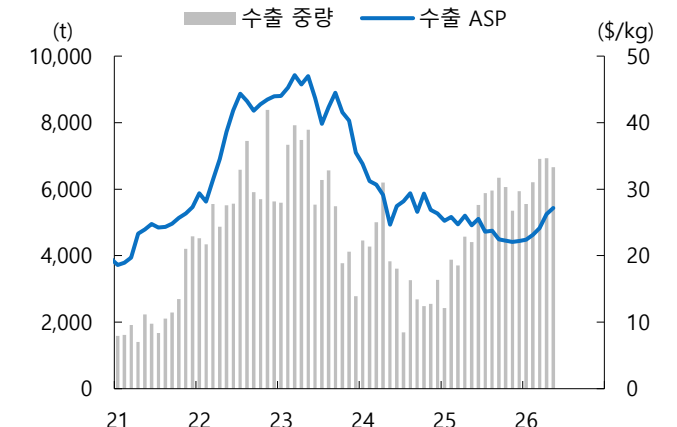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양극재 수출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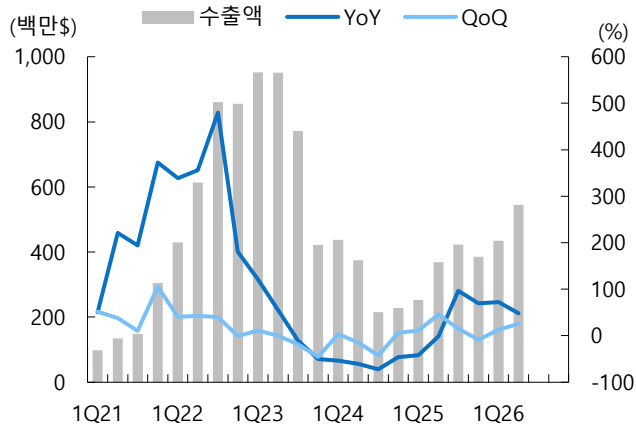
대구 양극재 수출중량 및 ASP(엘앤에프)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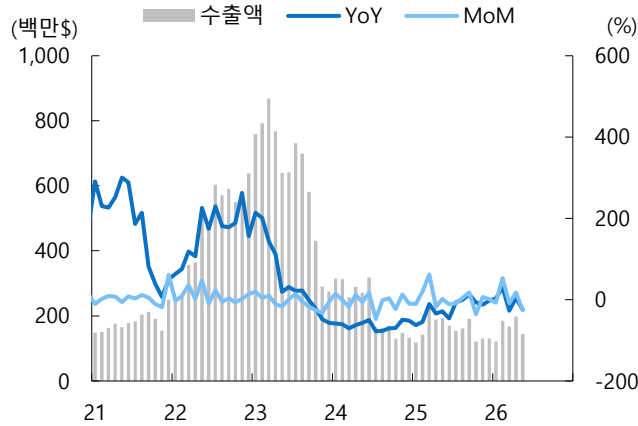
## ✓ 5월 청주+포항 양극재(에코프로비엠+포스코퓨처엠): YoY -25%, MoM -27%

대구 양극재 수출액(엘앤에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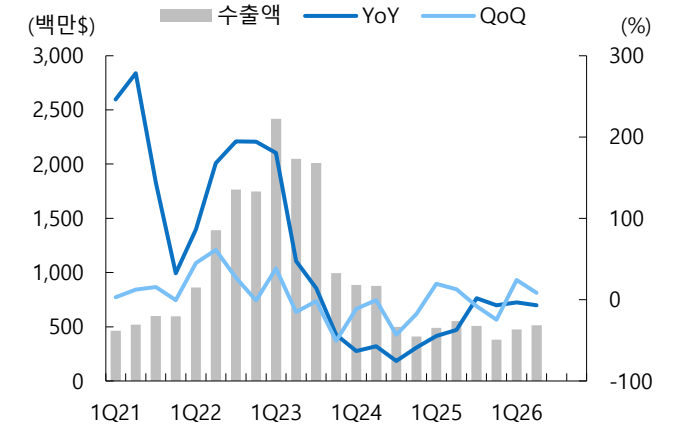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청주+포항 양극재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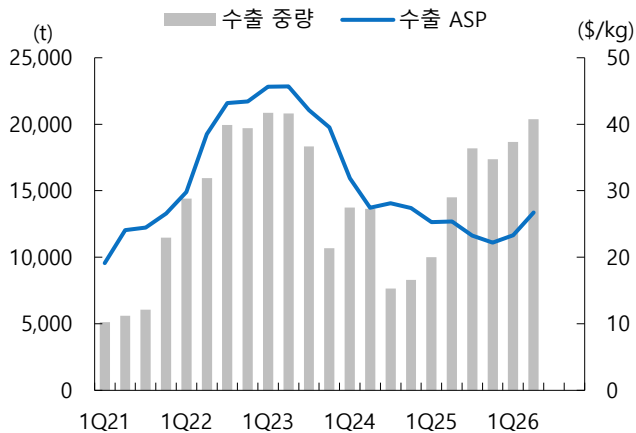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주: 청주=에코프로비엠+LG화학, 포항=에코프로비엠+포스코퓨처엠

청주+포항 양극재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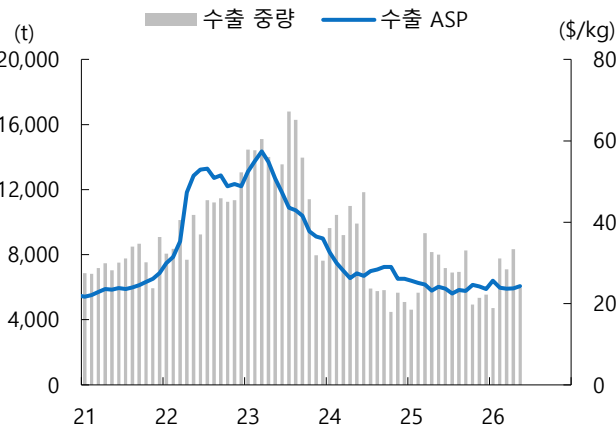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주1: 청주=에코프로비엠+LG화학, 포항=에코프로비엠+포스코퓨처엠  
주2: 2Q26은 4, 5월 수출액 기준 추정치

대구 양극재 수출중량 및 ASP(엘앤에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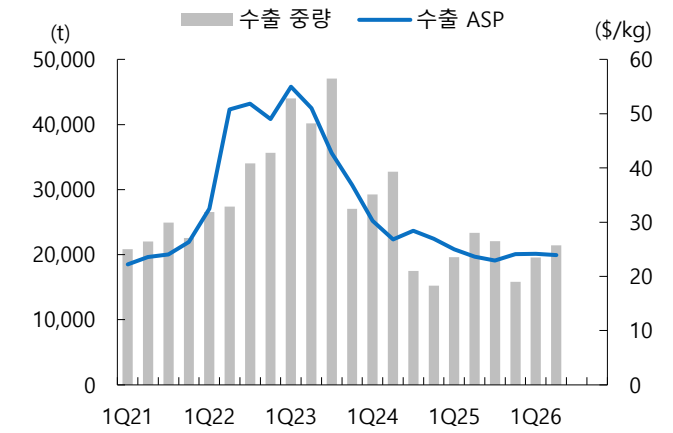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청주+포항 양극재 수출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주: 청주=에코프로비엠+LG화학, 포항=에코프로비엠+포스코퓨처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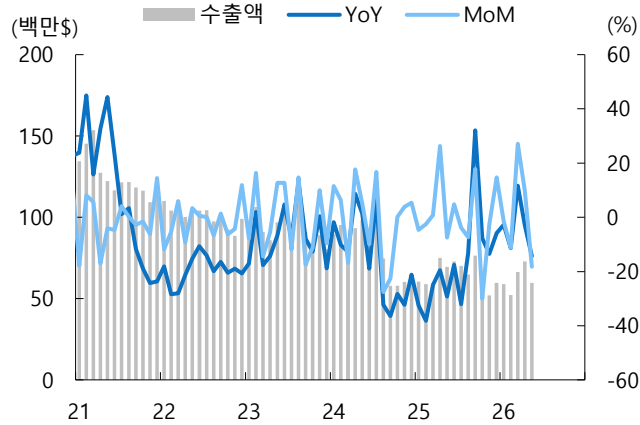
청주+포항 양극재 수출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주1: 청주=에코프로비엠+LG화학, 포항=에코프로비엠+포스코퓨처엠  
주2: 2Q26은 4, 5월 수출액 기준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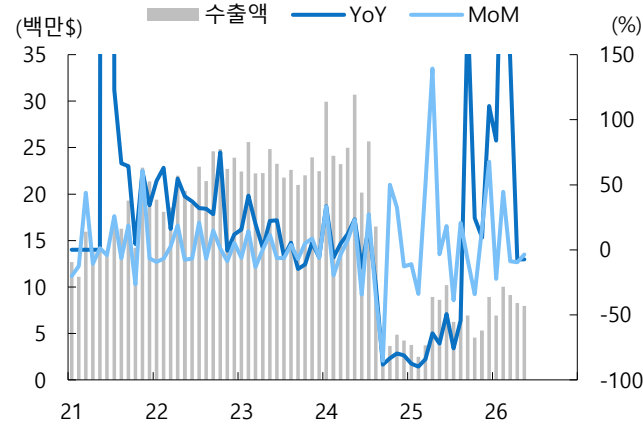
✓ 5월 분리막: YoY -14%, MoM -18%, WCP 분리막: YoY -7%, MoM -4%

분리막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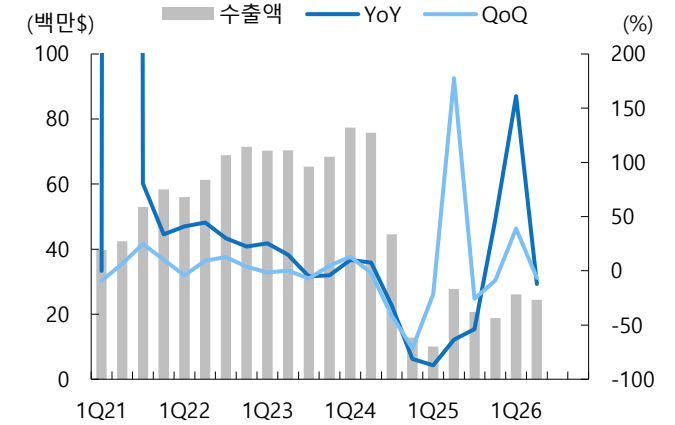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분리막 수출액(WC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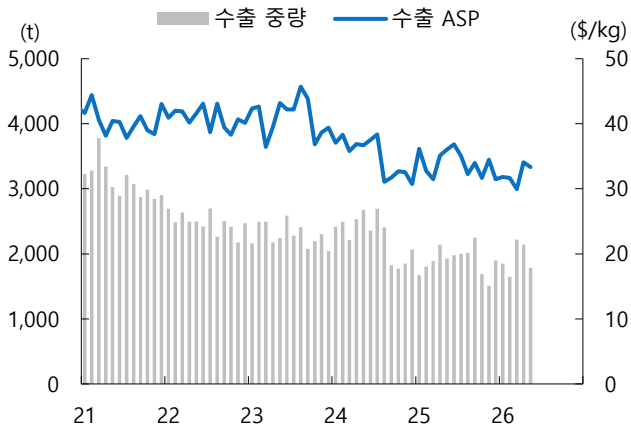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분리막 수출액(WC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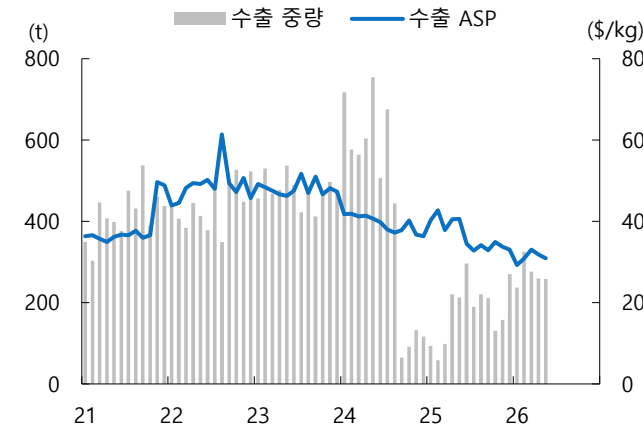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분리막 수출중량 및 A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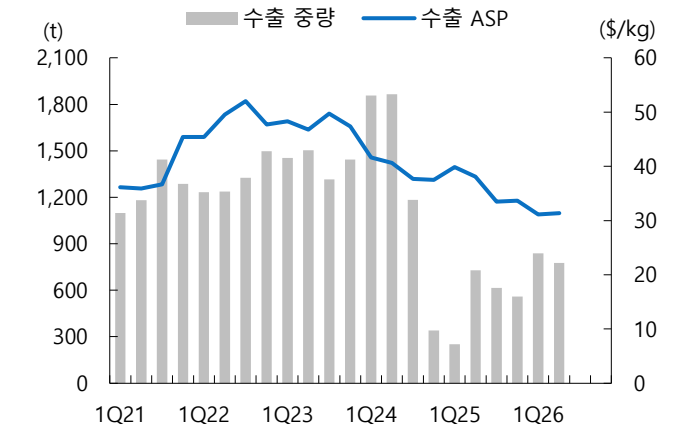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분리막 수출중량 및 ASP(WC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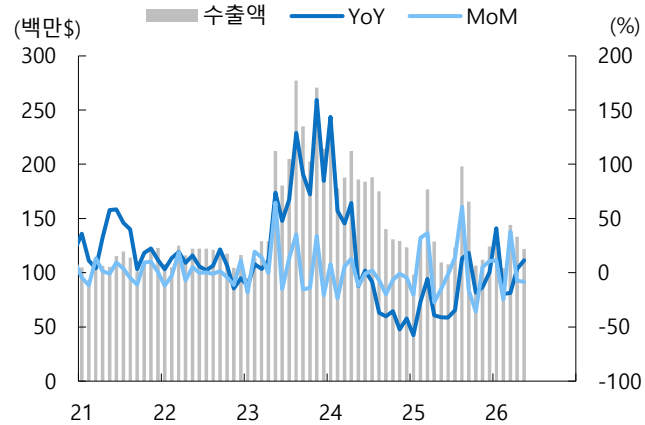
분리막 수출중량 및 ASP(WC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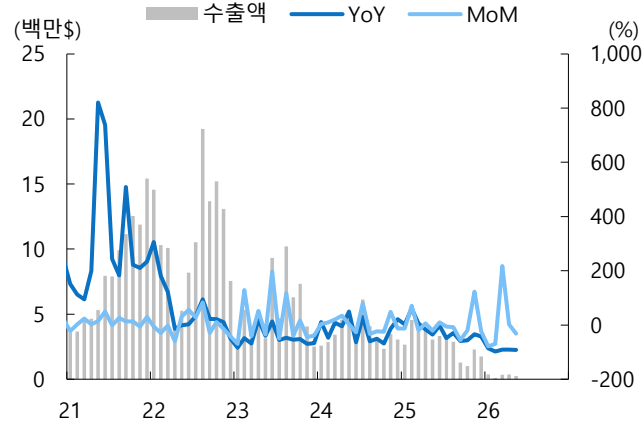
✓ 5월 음극재: YoY +11%, MoM -8%,  $\text{LiPO}_2\text{F}_2$ (P전해질): YoY -92%, MoM -32%

음극재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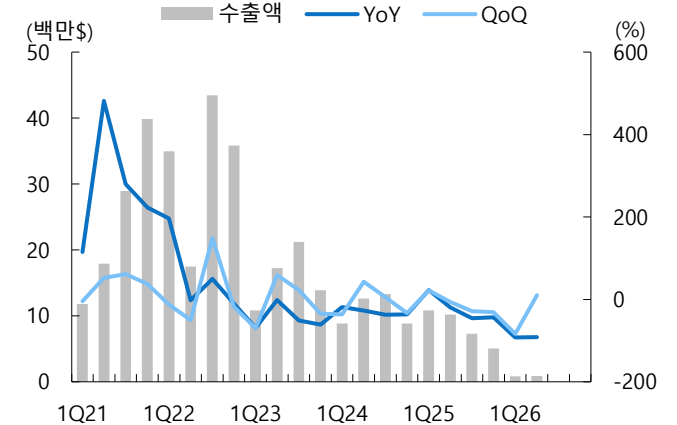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text{LiPO}_2\text{F}_2$  전해질 수출액(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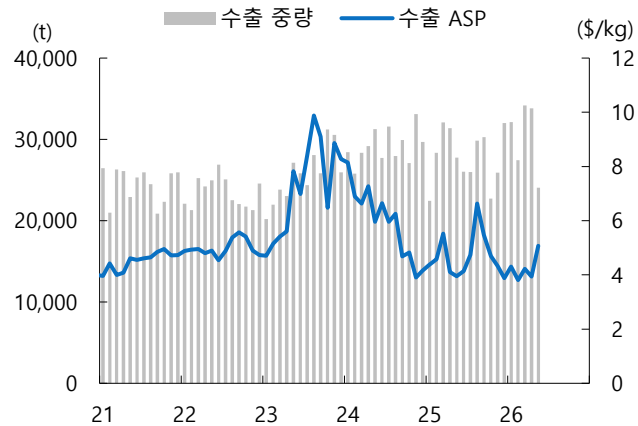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text{LiPO}_2\text{F}_2$  전해질 수출액(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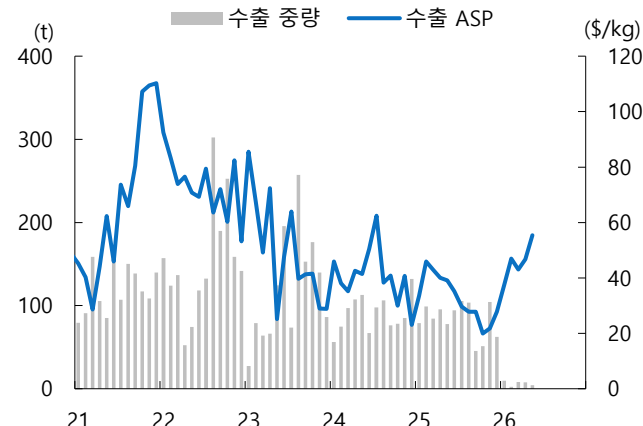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음극재 수출중량 및 A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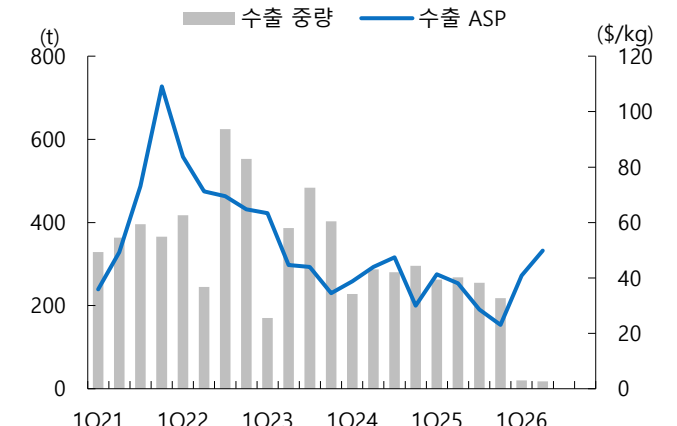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text{LiPO}_2\text{F}_2$  전해질 수출중량 및 ASP(천보)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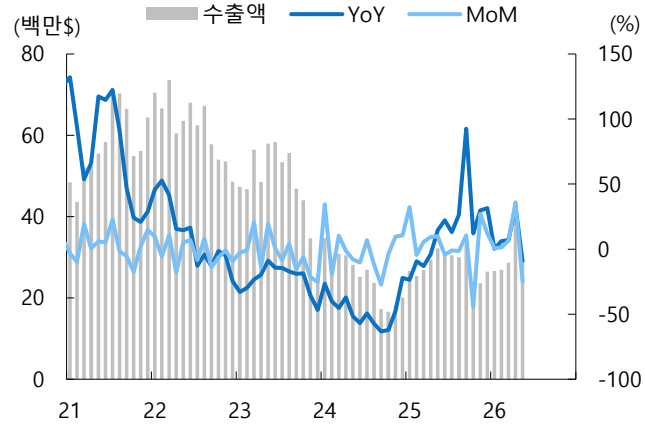
$\text{LiPO}_2\text{F}_2$  전해질 수출중량 및 ASP(천보)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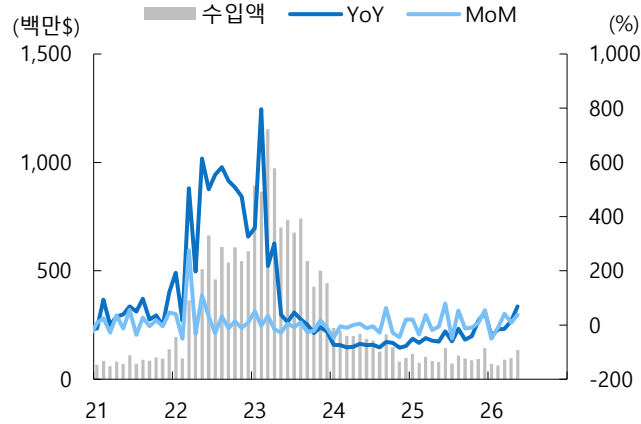
✓ 5월 동박: YoY -9%, MoM -25%, 탄산리튬+수산화리튬 수입 ASP 리튬 가격 상승에도 안정적 추세

동박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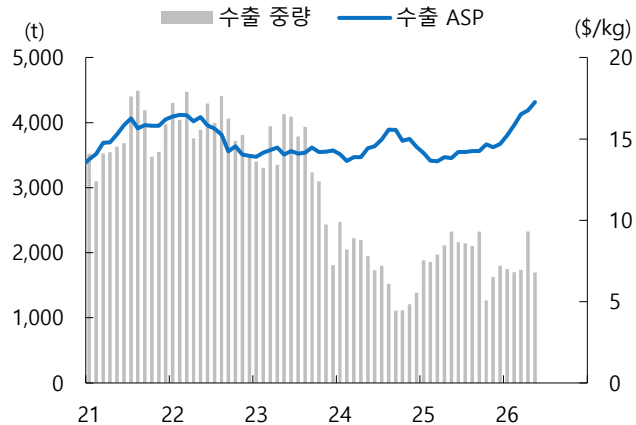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탄산리튬+수산화리튬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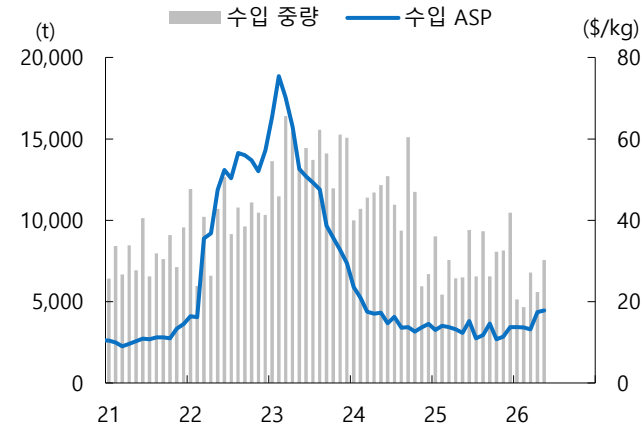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동박 수출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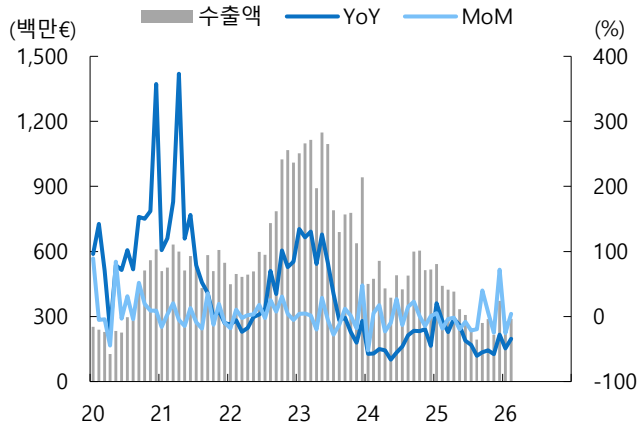
탄산리튬+수산화리튬 수입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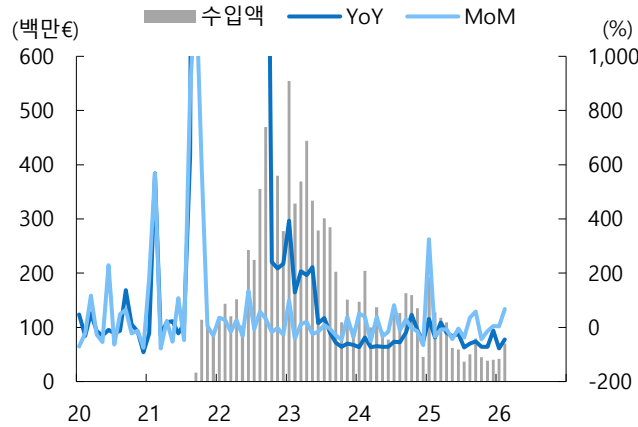
✓ 유럽향 국내 배터리 셀 수요 둔화로 가동률 하락, 이로 인해 주요 핵심 소재 수입액 규모도 정체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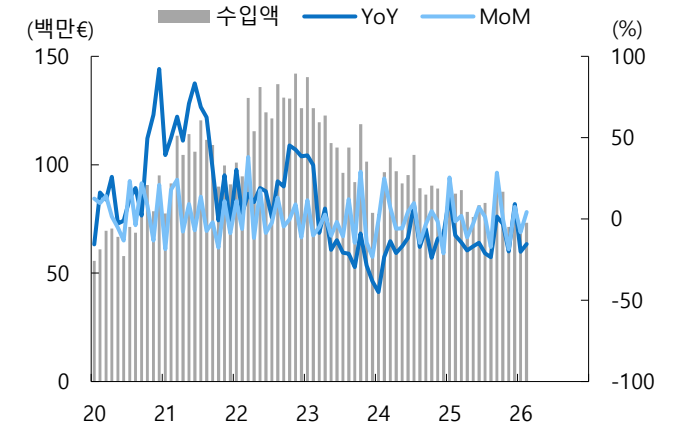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양극재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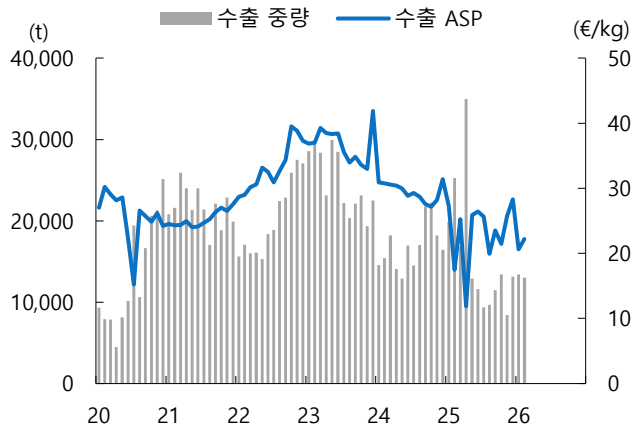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음극재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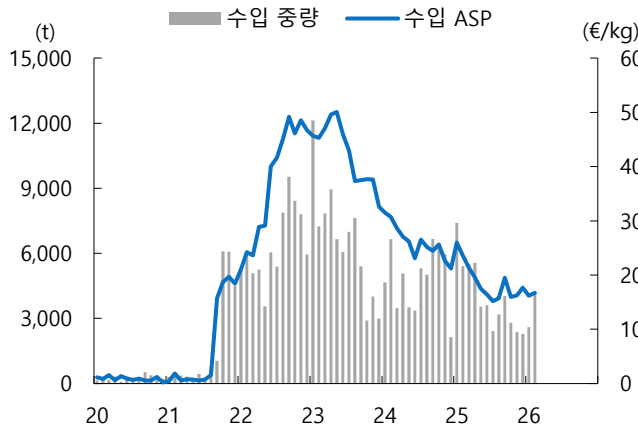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중량 및 A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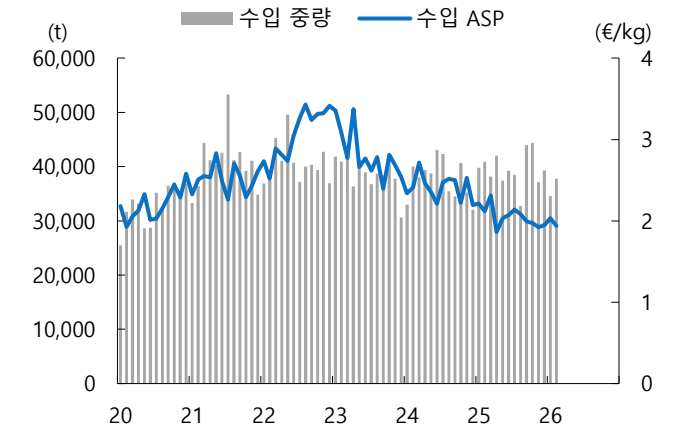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양극재 수입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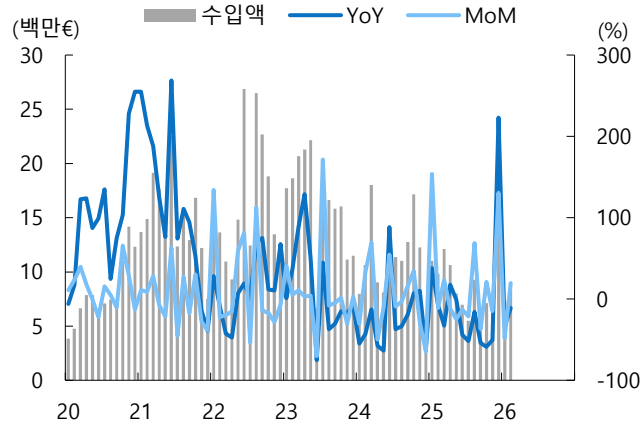
음극재 수입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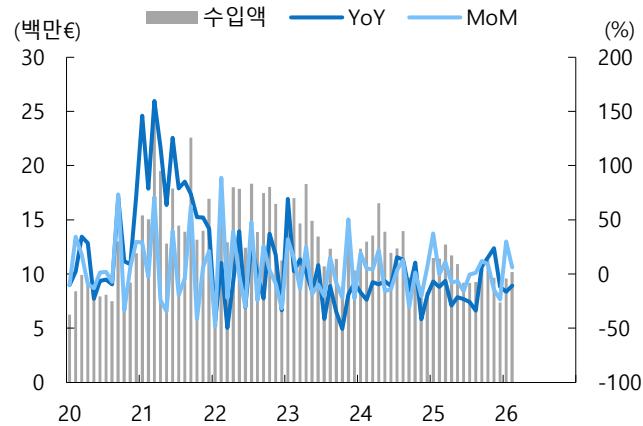
✓ 유럽향 국내 배터리 셀 수요 둔화로 가동률 하락, 이로 인해 주요 핵심 소재 수입액 규모도 정체

동박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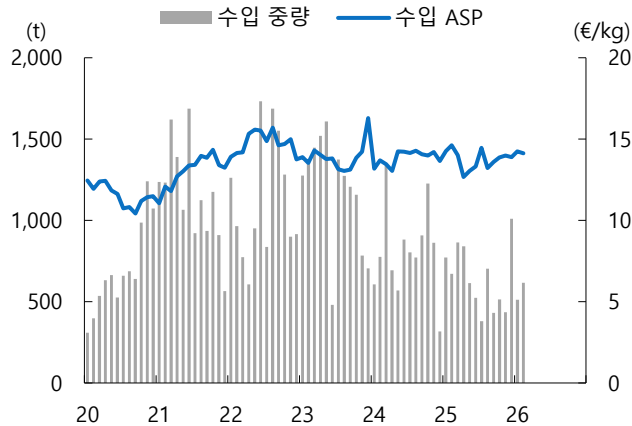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분리막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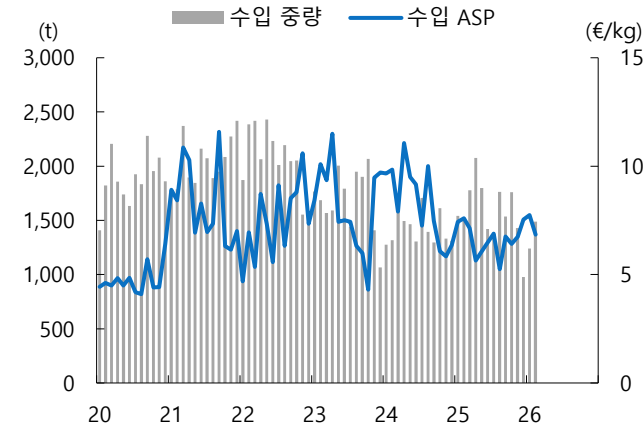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동박 수입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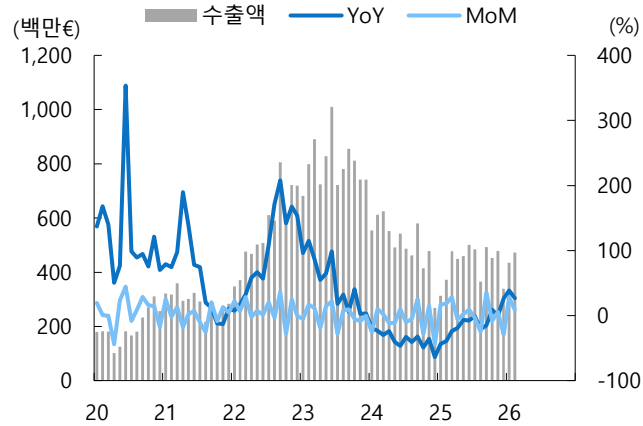
분리막 수입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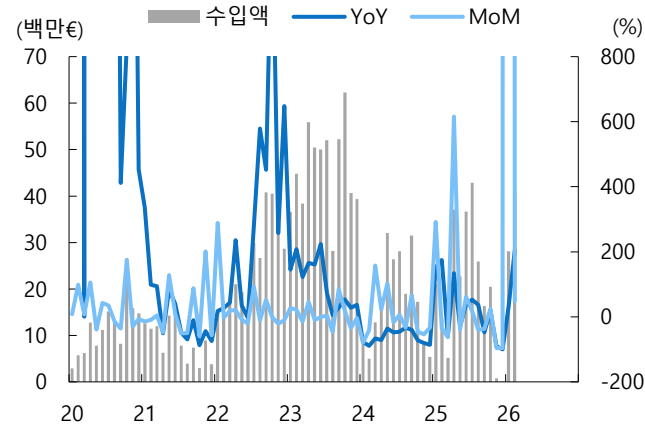
✓ 유럽향 국내 배터리 셀 수요 둔화로 가동률 하락, 이로 인해 주요 핵심 소재 수입액 규모도 정체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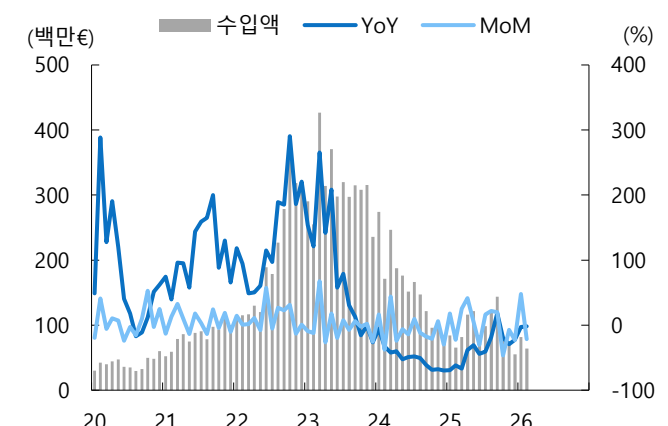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양극재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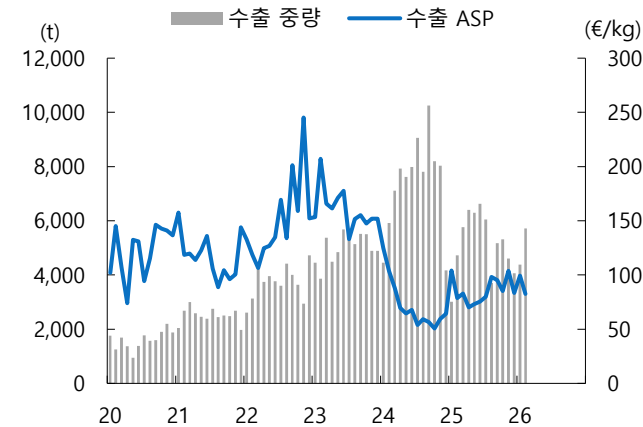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음극재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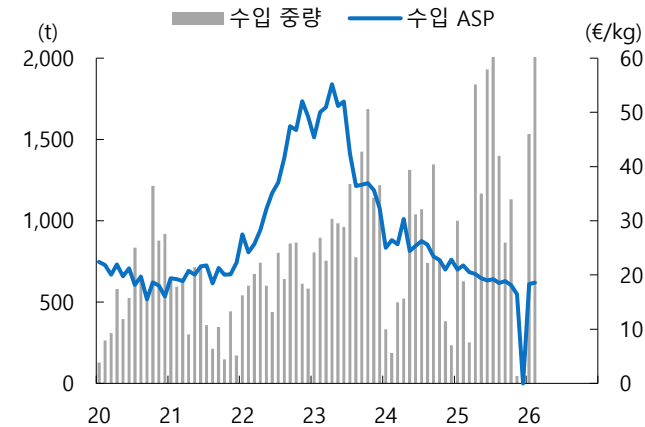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양극재 수입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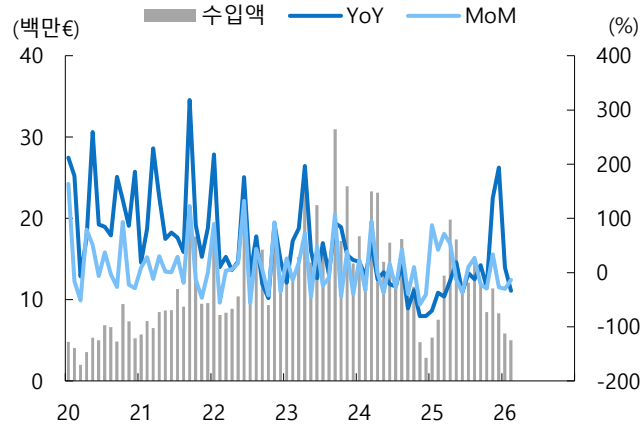
음극재 수입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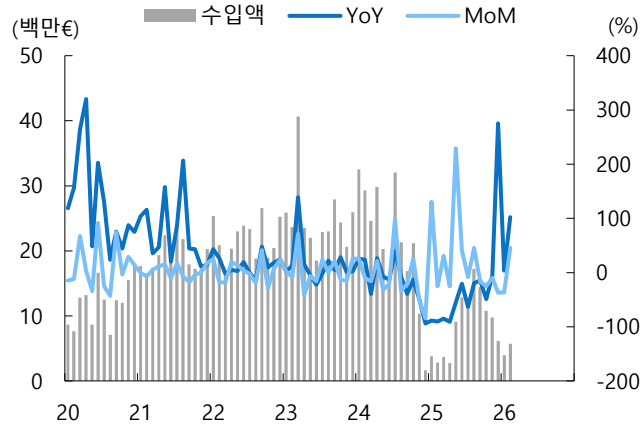
✓ 유럽향 국내 배터리 셀 수요 둔화로 가동률 하락, 이로 인해 주요 핵심 소재 수입액 규모도 정체

동박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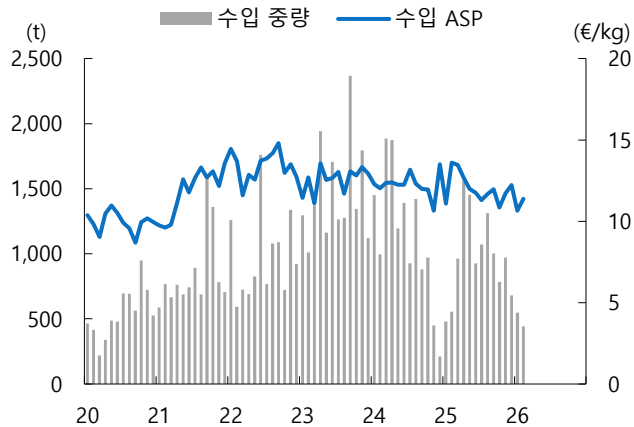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분리막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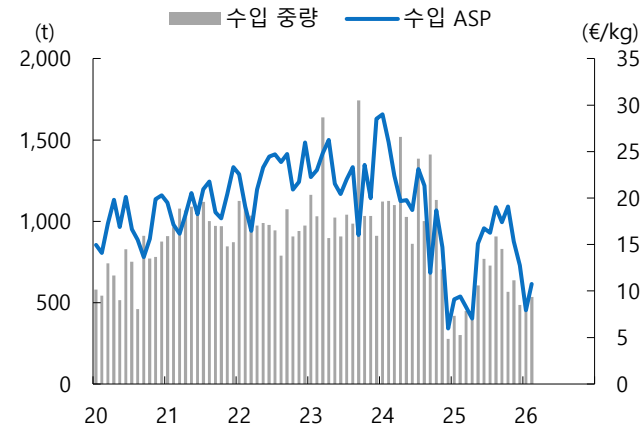
자료: KITA, iM증권

동박 수입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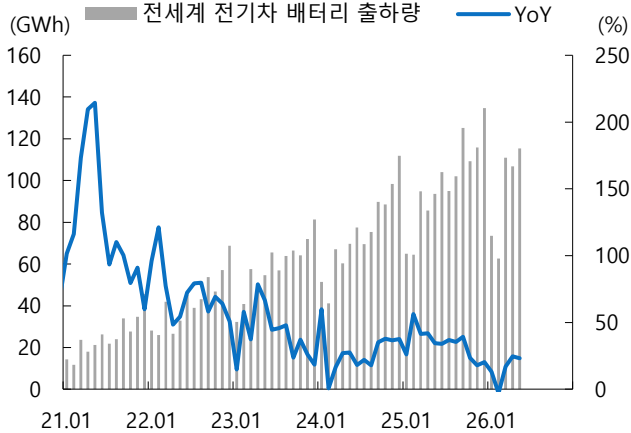
분리막 수입중량 및 ASP



자료: KITA, iM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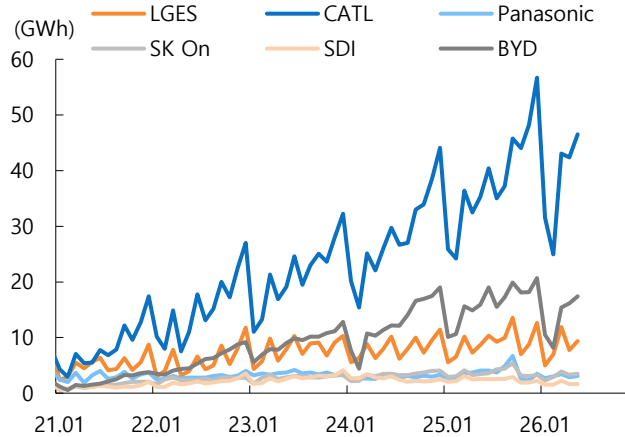
✓ 북미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로 국내 업체들의 출하량 정체 중이나 중국, 유럽, 신흥국 지역 기반의 CATL의 점유율 상승세 지속

전세계 전기차배터리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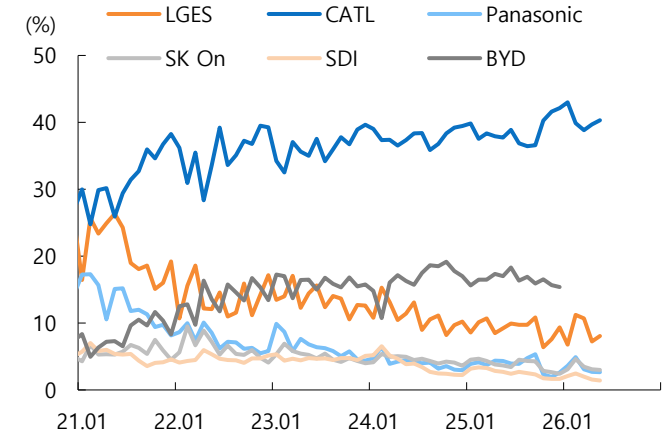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주요 업체별 전기차배터리 출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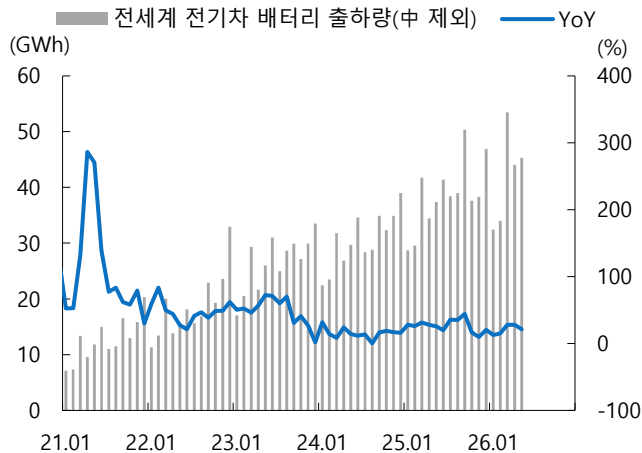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주요 업체별 전기차배터리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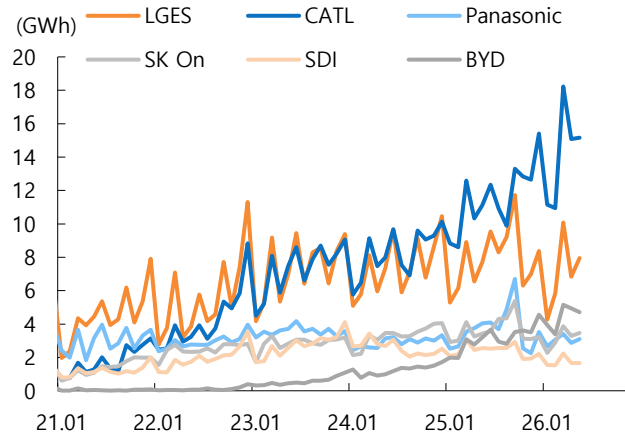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전세계 전기차배터리 출하량(중국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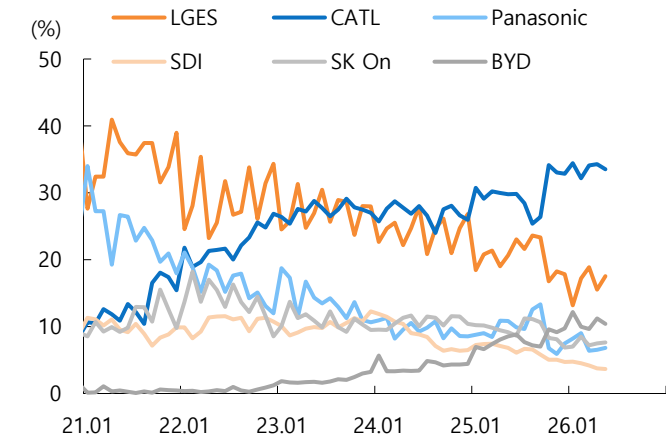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주요 업체별 전기차배터리 출하량(중국 제외)



자료: SNE 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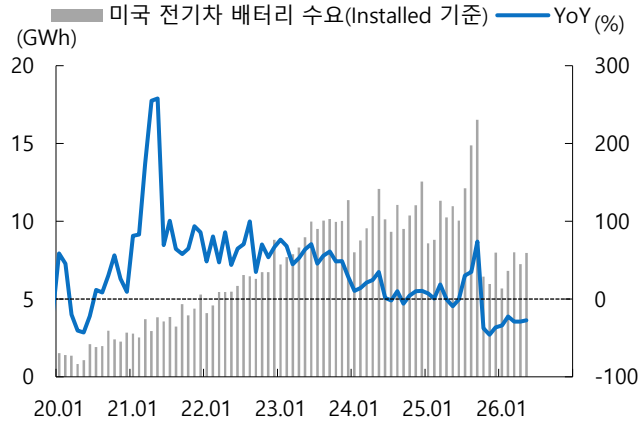
주요 업체별 전기차배터리 시장 점유율(중국 제외)



자료: SNE 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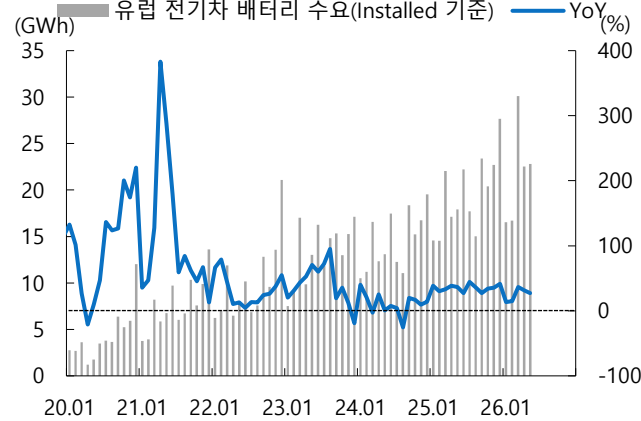
✓ 5월 전기차 배터리 시장 내 삼원계 점유율 전세계 40%, 중국 20%, 북미 94%, 유럽 81%, 기타 47% 차지

미국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Installed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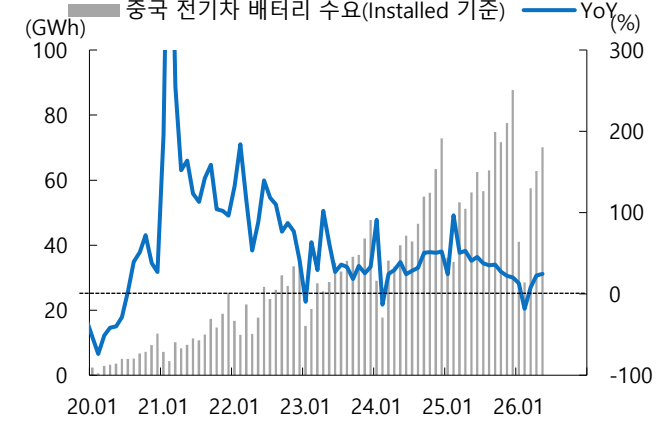
자료: SNE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유럽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Installed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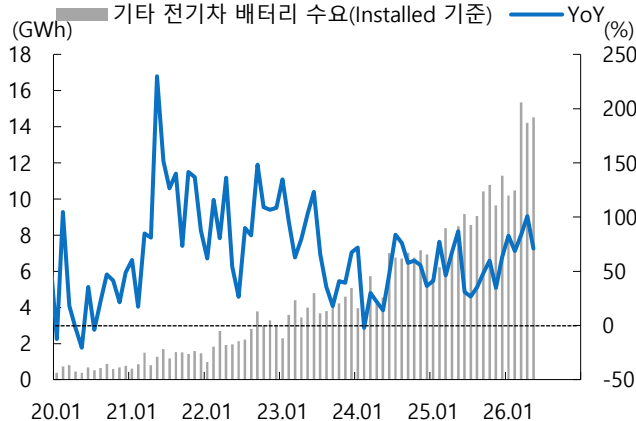
자료: SNE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수요(Installed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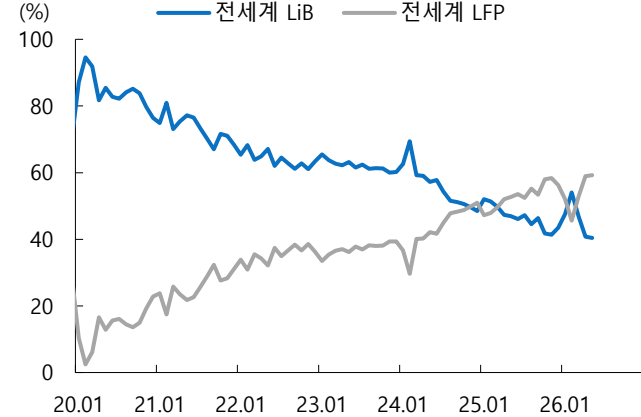
자료: SNE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기타 전기차 배터리 수요(Installed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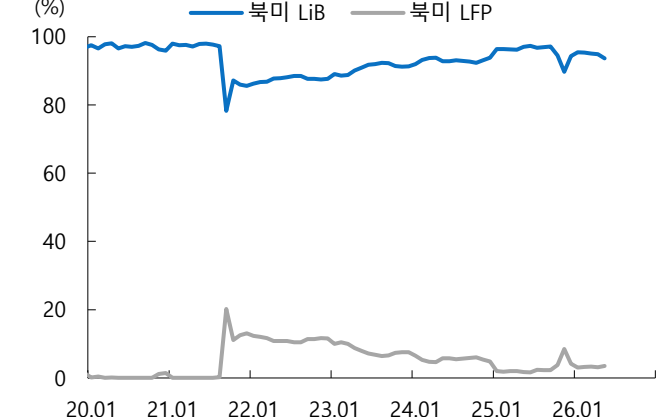
자료: SNE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전세계 삼원계 Vs. LFP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자료: SNE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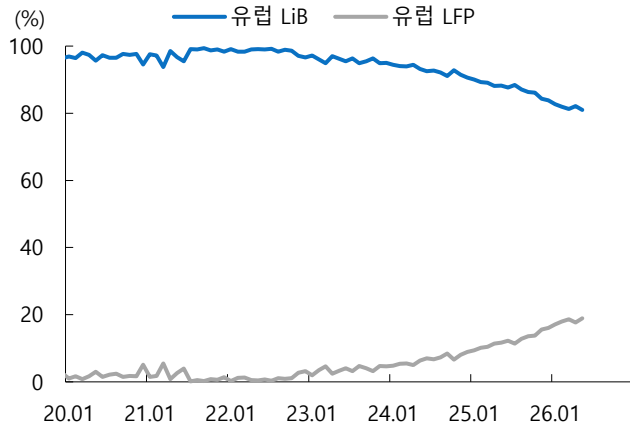
북미 삼원계 Vs. LFP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자료: SNE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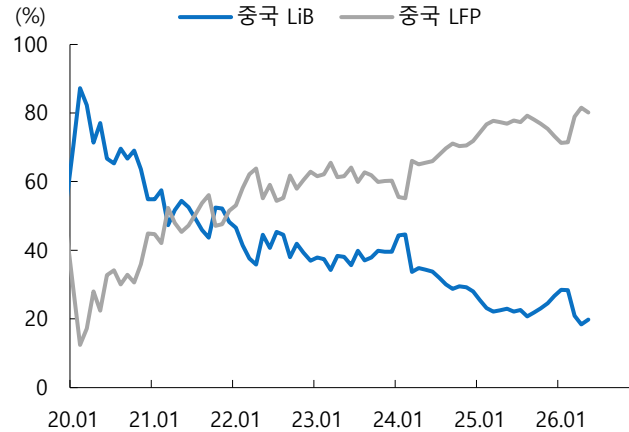
✓ 5월 전기차 배터리 시장 내 LFP 점유율 전세계 59%, 중국 80%, 북미 4%, 유럽 19%, 기타 52% 차지

유럽 삼원계 Vs. LFP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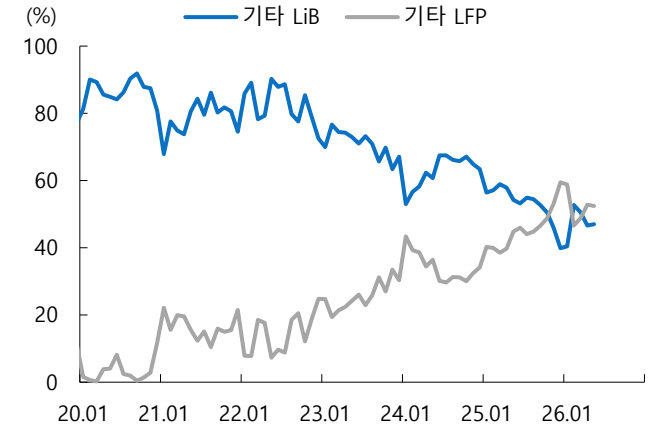
자료: SNE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중국 삼원계 Vs. LFP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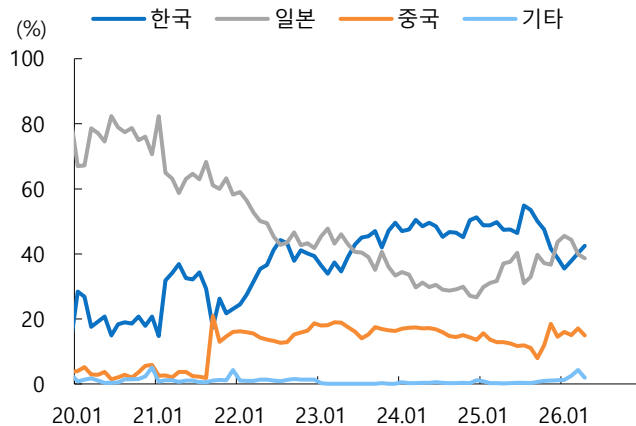
자료: SNE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기타 삼원계 Vs. LFP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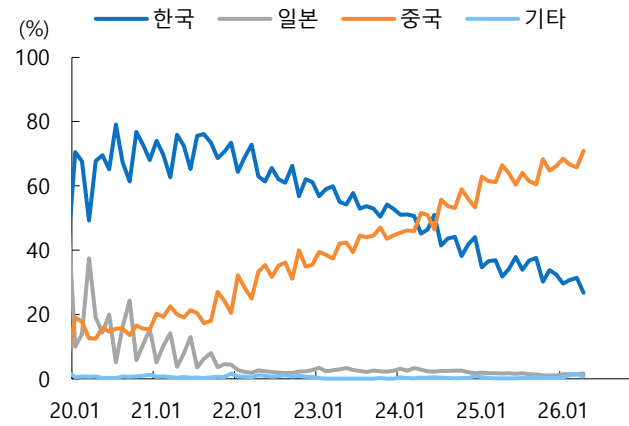
자료: SNE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북미 전기차 배터리 국가별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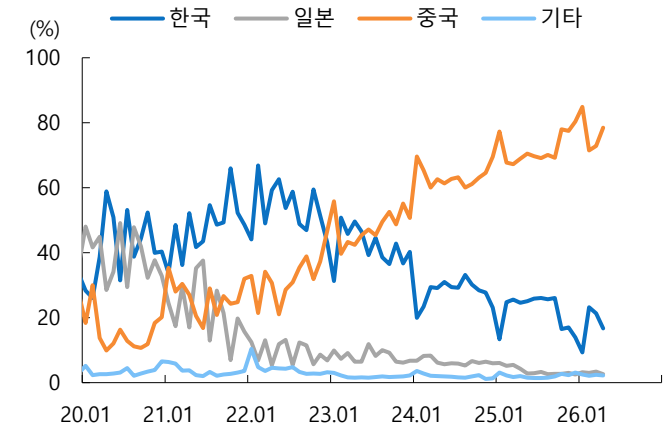
자료: SNE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유럽 전기차 배터리 국가별 시장 점유율



자료: SNE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신항국 전기차 배터리 국가별 시장 점유율



자료: SNEResearch, iM증권  
주: Installed 기준

# 국내 주요 셀/소재 업체 Valuation table

소재	업체명	주가 (원) (6/30)	시가총액 (십억원)	P/E (배)			P/B (배)			EV/EBITDA (배)			지배주주순이익 증가			ROE (%)		
				24	25P	26F	24	25P	26F	24	25P	26F	24	25P	26F	24	25P	26F
셀	LG에너지솔루션	362,000	84,708	-79.9	-80.4	-267.5	3.9	4.3	4.2	25.1	22.8	19.8	적전	적지	적지	-4.9	-5.2	-1.6
	삼성SDI	487,000	39,245	29.2	-32.4	117.1	0.8	1.0	1.7	10.1	30.9	22.0	-70%	적전	흑전	3.1	-3.2	1.6
	SK이노베이션	94,900	16,043	-5.3	-4.8	9.0	0.7	0.8	0.7	39.4	-27.8	4.8	적전	적지	흑전	-9.7	-14.4	7.8
양극재	포스코퓨처엠	175,600	15,619	-51.9	485.0	768.7	3.7	4.1	3.9	-70.2	84.6	59.8	적전	흑전	-94%	-8.0	0.9	0.5
	에코프로비엠	142,500	13,941	-111.4	364.2	368.4	6.3	8.3	8.1	143.0	79.6	76.5	적지	흑전	-90%	-6.3	2.3	2.2
	엘앤에프	111,500	4,523	-7.8	-6.6	-635.1	3.8	5.5	6.4	-12.5	-14.2	19.1	적지	적지	적지	-41.7	-77.0	-1.1
	코스모신소재	39,250	1,304	94.9	-2,692.4	177.8	3.4	2.8	2.6	53.2	80.4	43.4	-35%	적전	흑전	3.6	-0.1	1.5
분리막	SK아이이테크놀로지	16,210	1,326	-6.5	-9.0	-5.9	0.7	0.8	0.6	-21.2	-20.6	-24.7	적전	적지	적지	-10.4	-8.6	-9.0
	더블유씨피	10,680	361	-5.2	-1.3	-5.0	0.4	0.2	0.4	-250.0	-15	99.4	적전	적지	적지	-7.3	-17.4	-8.3
전지박	SKC	106,600	5,287	-8.4	-5.1	-22.7	2.9	4.0	4.2	-20.0	-12	65.6	적지	적지	적지	-34.3	-73.3	-21.3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44,450	2,328	172.8	-10.0	-94.3	0.8	1.0	1.4	11.9	-12.7	35.2	흑전	적전	적지	0.5	-10.5	-1.5
	솔루스첨단소재	8,860	622	160.6	-9.9	6.7	1.0	1.0	1.0	24.8	-33.4	37.0	-98%	적전	흑전	0.6	-9.2	16.3
전해액/ 전해질	천보	40,700	499	-13.3	-8.6	-52.1	1.0	1.4	1.2	89.0	-40.7	6.5	적지	적지	적지	-8.3	-14.6	-2.3
	후성	20,050	2,150	-7.5	152.1	97.3	1.6	2.4	6.2	-15.0	14.2	25.0	적지	흑전	-58%	-21.7	1.6	6.5
실리콘 음극재	한솔케미칼	291,000	3,205	9.0	17.5	18.9	1.1	2.3	2.6	6.3	11.3	13.1	16%	1101%	-88%	13.5	14.3	14.9
	대주전자재료	97,300	1,527	31.4	47.6	83.8	4.9	3.8	5.5	22.1	25.8	27.7	5167%	460%	-91%	19.3	8.6	6.9
도전재	나노신소재	51,200	628	-385.1	373.0	69.7	2.8	2.4	2.4	168.9	29.4	N/A	적전	흑전	-45%	-0.8	0.7	3.6
	제이오	4,860	156	-49.9	-30.2	N/A	2.3	1.2	N/A	-69.2	404.4	N/A	적전	적지	N/A	-43.0	-47.0	-8.2
부품	신흥에스이씨	5,250	202	10.6	-37.8	17.3	0.7	0.6	0.7	5.6	6.0	6.8	-29%	적전	흑전	6.3	-1.6	3.9
단순 평균				-14.2	-70.4	31.8	2.3	2.4	2.7	3.8	35.8	30.9	825%	780%	-78%	-13.9	-12.6	0.5

# 전세계 주요 셀/소재 업체 Valuation table

2026.06.30				시가총액 (백만\$)	주가			PER(배)		PBR(배)		EV/EBITDA(배)		ROE(%)		영업이익률		EPS 성장률	
구분	종목명	국가	통화		증가	1M%	YTD%	25	26E	25	26E	25	26E	25	26E	25	26E	25	26E
전기차	Tesla	미국	USD	1,546,757	411.8	-5.5	-8.4	373.1	219.6	20.5	15.8	119.6	103.6	6.5	6.4	4.8	5.4	-28.0	16.8
배터리 셀	LG에너지솔루션	한국	KRW	54,674	362,500	-20.9	-2.0	-	1,576.1	4.3	4.2	22.7	20.4	-3.8	0.3	5.7	4.6	적지	흑전
	삼성SDI	한국	KRW	25,503	491,000	-28.6	81.5	34.5	121.9	1.0	1.8	83.9	22.2	-2.7	1.7	-13.0	0.1	적전	흑전
	SK이노베이션	한국	KRW	10,352	95,000	-20.8	-6.4	-	14.5	0.8	0.6	15.4	8.5	-5.1	4.9	0.6	3.9	적지	흑전
	CATL	중국	CNY	274,819	393.0	-7.3	7.0	22.8	18.8	5.0	4.4	15.7	12.4	23.4	25.1	18.9	18.6	31.2	37.4
	BYD	중국	HKD	97,841	72.5	-20.6	-24.0	23.9	14.1	3.4	2.0	7.7	6.0	17.3	15.0	4.5	5.0	158.9	11.5
	Eve Energy	중국	CNY	20,824	65.0	2.1	-1.1	32.6	19.6	3.2	2.8	22.4	14.8	11.2	15.0	7.7	7.6	10.5	50.9
	Panasonic	일본	JPY	68,010	4,502	21.7	122.5	24.9	42.5	0.9	2.2	9.7	17.3	6.8	5.2	4.7	3.8	-13.4	-22.1
	Gotion High-tech	중국	CNY	7,353	27.5	-16.5	-29.7	29.6	23.8	2.4	1.6	17.3	14.3	10.4	6.9	6.9	4.3	155.1	-33.4
	GS Yuasa	일본	JPY	3,997	6,466	-1.4	72.4	9.0	19.3	1.0	1.8	5.6	9.4	8.1	9.0	8.1	9.1	-8.8	20.9
양극재	포스코퓨처엠	한국	KRW	9,907	172,800	-29.8	-7.6	3,668.6	267.6	4.1	3.8	86.0	53.9	1.4	1.0	2.7	2.8	흑전	22.7
	에코프로비엠	한국	KRW	7,825	124,100	-42.8	-15.2	363.3	294.1	8.3	7.0	77.2	60.8	1.5	2.2	4.5	3.8	흑전	22.6
	엘앤에프	한국	KRW	2,855	109,200	-35.0	14.8	-	-	5.4	7.1	-	21.0	-53.8	-4.9	-10.0	6.1	적지	적지
	코스모신소재	한국	KRW	818	38,200	-27.4	-11.8	84.3	-	2.8	-	89.2	26.2	-	-	0.5	2.6	-	-
	Umicore SA	벨기에	EUR	5,703	20.3	-19.6	13.5	11.2	12.0	1.9	2.0	4.5	6.4	16.4	15.2	16.0	18.3	흑전	37.7
	Sumitomo Metal	일본	JPY	13,368	7,469	-17.9	17.5	9.8	14.0	0.8	1.1	10.8	13.5	2.5	7.2	2.2	10.1	157.7	245.6
	Ronbay	중국	CNY	3,223	31	-1.3	-13.6	82.9	51.1	3.1	2.6	48.1	21.7	-1.3	5.8	0.0	3.1	-84.8	835.9
	Hunan Yuneng	중국	CNY	9,428	76	-14.2	17.3	38.5	15.9	3.8	3.5	16.7	10.5	10.7	23.2	4.8	7.9	137.9	157.0
	Wanrun New Energy	중국	CNY	2,370	128	-4.7	69.2	-	-	1.8	-	38.9	-	-	-	-2.8	-	-	-
Baoan	중국	CNY	2,368	6.2	-15.8	-36.8	125.2	-	2.5	-	13.3	-	-	-	9.7	-	-	-	
Easpring Material	중국	CNY	3,853	48.0	-13.5	-16.9	47.7	23.8	2.1	1.7	26.0	14.7	5.6	7.1	8.3	7.1	55.8	39.2	
음극재	대주전자재료	한국	KRW	982	97,100	-36.1	51.5	46.6	59.9	3.8	5.5	32.9	38.6	9.8	9.9	8.7	11.1	-42.3	13.4
	나노신소재	한국	KRW	399	50,500	-24.7	1.0	367.6	74.1	2.4	2.4	31.8	23.8	1.9	3.3	6.0	8.5	흑전	76.0
	Hitachi Ltd	일본	JPY	124,798	4,471	-13.5	-8.8	27.7	25.3	3.4	3.3	13.8	12.2	11.1	13.5	9.6	11.2	4.0	26.8
	Mitsui	일본	JPY	15,035	42,550	-17.6	141.3	11.1	32.5	2.4	6.3	6.8	16.7	18.7	22.3	9.2	15.7	-12.5	32.2
	Ningbo Shanshan	중국	CNY	4,491	13.6	-7.5	0.3	64.3	25.6	1.4	-	13.7	10.1	-	5.3	6.3	8.7	-	-
	Sangtai Tech	중국	CNY	3,593	93.5	6.8	9.0	23.6	20.3	3.2	3.0	14.8	14.0	14.2	15.2	16.4	14.3	20.7	18.6
	BTR	중국	CNY	4,173	24.9	-5.9	-23.1	41.5	19.9	2.9	2.0	15.6	11.5	-	9.8	10.4	7.6	-	-
	XFH Tech	중국	CNY	584	33.2	-2.8	11.3	65.5	-	1.6	-	21.2	-	-	-	6.1	-	-	-
	Tokai Carbon	중국	JPY	2,373	1,715	-3.7	76.9	10.3	23.9	0.7	1.1	6.4	8.2	5.3	4.1	8.0	8.3	흑전	-7.0
	Nippon Carbon	중국	JPY	337	4,630	-2.3	4.9	10.1	19.5	0.9	-	6.8	-	-	-	13.0	10.9	44.6	-55.5

# 전세계 주요 셀/소재 업체 Valuation table

2026.06.30				시가총액 (백만\$)	주가			PER(배)		PBR(배)		EV/EBITDA(배)		ROE(%)		영업이익률		EPS 성장률	
구분	종목명	국가	통화		증가	1M%	YTD%	25	26E	25	26E	25	26E	25	26E	25	26E	25	26E
전해액	솔브레인	한국	KRW	1,833	365,500	-6.2	39.5	25.5	18.2	1.9	2.4	9.5	9.8	9.2	13.7	14.4	18.4	-21.7	68.1
	Tinci	중국	CNY	15,448	51.4	-1.2	11.0	65.3	15.5	5.2	4.6	33.6	11.4	8.6	29.6	9.8	24.6	138.8	454.8
	Capchem	중국	CNY	10,314	92.9	26.1	77.2	35.9	34.3	3.6	5.6	24.4	24.0	10.9	16.8	13.6	16.8	22.9	74.7
	Stella Chemifa	일본	JPY	525	6,580	-5.9	49.9	17.0	26.1	1.1	1.7	6.4	10.5	7.7	6.6	12.5	12.5	20.6	-13.4
전해질	천보	한국	KRW	320	40,550	-17.7	-17.7	-	-	1.4	1.2	32.0	9.6	-6.2	-3.1	5.0	-5.6	적지	적지
	후성	한국	KRW	1,417	20,500	79.5	172.2	150.6	99.5	2.4	6.3	16.3	26.0	-3.6	6.5	5.4	8.9	격지	흑전
전지박	SKC	한국	KRW	3,398	106,300	-24.5	7.1	-	-	4.7	4.3	-	69.8	-22.7	-23.0	-12.6	-3.5	적지	적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한국	KRW	1,482	43,900	-22.3	43.2	231.0	-	1.0	1.4	86.9	35.3	-9.2	-1.8	-20.3	-4.1	적전	적지
	솔루스첨단소재	한국	KRW	400	8,830	-23.2	20.8	146.9	-	0.7	1.2	2,587.8	51.4	-9.5	-4.4	-11.6	-8.6	적전	적지
	Furukawa Elec	일본	JPY	20,571	4,730	-9.1	372.5	9.7	63.2	1.7	8.6	9.2	36.5	8.8	14.8	3.6	4.4	-13.9	83.7
부품	상아프론테크	한국	KRW	165	16,040	-21.6	3.4	35.8	33.8	1.2	1.3	15.7	11.6	2.5	3.7	3.5	4.8	-22.3	54.4
	신흥에스이씨	한국	KRW	130	5,250	-26.8	8.5	9.1	15.4	0.5	0.7	7.2	6.8	-1.7	3.9	0.9	4.0	적전	흑전
리튬	Ganfeng Lithium	중국	CNY	18,648	65.4	-8.5	4.0	78.6	16.3	2.9	2.6	30.4	13.3	1.8	15.3	4.8	22.5	흑전	1,398.1
	Albemarle	미국	USD	15,298	129.7	-26.5	-8.3	-	10.3	2.3	1.5	65.2	6.3	-0.7	15.6	-3.4	22.6	적지	흑전
	Tianqi Lithium	중국	CNY	14,556	61.3	-2.5	10.7	197.8	14.9	2.1	2.0	24.1	6.2	1.7	13.9	34.3	62.1	흑전	825.8
	Sociedad Quimica	칠레	CLP	19,732	61,336	-10.5	1.3	32.6	-	3.4	-	16.2	-	-	-	23.2	-	-	-
	FMC	미국	USD	1,443	11.5	-15.5	-16.8	3.3	6.7	0.8	0.7	6.8	8.1	8.7	6.4	17.0	14.2	7.6	-41.7
코발트	Huayou Cobalt	중국	CNY	13,465	48.3	-11.9	-29.3	19.5	10.3	2.6	1.6	13.5	8.0	14.6	16.1	11.3	12.6	29.5	44.3
	Molybdenum	중국	CNY	52,766	17.6	-5.2	-12.3	21.5	11.6	5.2	3.5	9.9	5.7	25.1	32.1	16.5	22.8	47.9	62.3
	Hanrui Cobalt	중국	CNY	1,629	35.7	-6.4	-21.0	55.1	-	2.6	-	25.1	-	-	-	5.0	-	-	-
분리막	SKIET	한국	KRW	856	16,240	-15.9	-35.3	-	-	0.8	0.5	-	-	-5.3	-7.3	-74.6	-87.0	적지	적지
	WCP	한국	KRW	233	10,680	-33.2	70.3	-	-	0.2	0.4	-	62.2	-14.4	-7.6	-101.1	-16.2	적지	적지
	Yunnan energy	중국	CNY	9,683	66.9	-5.1	18.1	377.6	38.2	2.2	2.4	23.9	16.7	0.6	6.5	2.0	12.8	흑전	1,150.0
	Asahi Kasei	일본	JPY	15,054	1,791.0	0.2	28.9	11.9	16.6	0.9	1.2	6.1	8.0	6.2	7.5	6.7	7.4	-13.8	27.5
	Toray	일본	JPY	10,439	1,127.5	-5.4	10.5	19.3	21.0	0.8	1.0	10.0	9.4	5.1	4.7	5.3	4.8	17.8	-6.7
	Sumitomo	일본	JPY	5,239	513.5	-15.8	15.2	12.0	13.7	0.7	0.9	6.2	6.9	2.7	6.7	6.8	7.2	-20.3	99.7
	Senior Tech.	중국	CNY	3,901	18.7	18.3	22.8	190.6	36.6	2.0	2.4	29.4	18.2	2.2	6.5	7.4	15.5	-36.7	199.4
	Cangzhou Mingzhu	중국	CNY	1,006	4.1	-16.9	-13.2	51.6	-	1.6	-	24.2	-	-	-	5.0	-	-	-

###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 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매수): 추천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 이상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 (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 [투자등급 비율 2026-06-30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89.8%	10.2%	-